

경북의사회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

경북의사회

2013 Summer Vol.50



경상북도의사회

Gyeongsangbukdo Medical Association

2013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의사회비 납부 안내

매년 실시되는 회원정기신고와 2013년도 의사회비는 의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이미지 고양과 회원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님께서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회비는 의권 신장과 더불어 본회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쓰여지고 있으며, 의사의 중추단체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은 물론 단합된 회세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책단체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의사단체의 존재성을 되새겨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본회 소속회원)

:: 회원 변동 신고

- 회원기록부에 인적사항 누락 또는 변경사항을 정확히 수정 기재 후 날인
- 전산입력된 기록부가 없는 회원은 공란(백지)용지에 상세히 기록 날인
-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이용 동의서를 회원 본인 확인(서명 날인) 후 신고서를 지역의사회로 송부(취합후 본회 제출)

:: 의협회비 면제 및 감면 대상

- 회비면제 회원
 - 만70세이상 회원(1943년 5월 1일 이전 출생자) : 단, 경상북도 의사회비는 '가 회원' 250,000원, '나 회원' 125,000원 납부
 -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중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회원
 - 공직 또는 봉직의사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에 전업한 회원
 - 기타 사유로 생계가 극히 곤란함이 인정되어 면제를 요청하는 회원
 - ※ 회비면제회원 신청 : 해당회원의 증빙자료 첨부 신청
- 회비 감면회원
 - 개원회원('가'회원)중 '나'회원회비 적용대상 : 471,000원 징수
 - 만65세이상 회원 : 1943년 5월 1일 ~ 1948년 4월 30일 주민등록표상 기준

:: 회비내역

구 분	가 회원		나 회원	다 회원	라 회원	휴직회원	비 고
	개원회원	감면회원	근무회원	전공의회원	공보의회원		
대한의사협회비	310,000	231,000	231,000	135,000	106,000	135,000	연회비·구독료·연구소 회비 학술대회분담금·약법대처기금
경북도의사회비	250,000	250,000	125,000	75,000	-	-	
계	560,000	481,000	356,000	210,000	106,000	135,000	

:: 입금계좌

- 농협 301-0104-6600-81 경상북도의사회



발행인 정능수
 편집인 김중영, 김영태
 발행일 2013년 8월 30일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702-82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82
 TEL. (053)941-7785 FAX. (053)941-5557
 홈페이지 www.igbm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gbma
 제작처 선진애드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00-5
 TEL. (053)555-3336 FAX. (053)556-3273

04 특집 |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활동내용 및 결과

후기 _ 캄보디아 프놈펜 해외의료봉사를 마치고... 정능수

캄보디아에서의 나눔, 사랑 그리고 희망 · 장유석

사랑은 실천하여야 꼭 열매를 맺는다 · 고순희

뭔가 특별한 게 있었던 의료봉사 · 김형환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캄보디아에서의 느낌을 잘 전달하는 것이 나의 소임 · 심형신

캄보디아 고국 방문으로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커소피

진짜 봉사는 지금부터... · 이지형

캄보디아에 심은 꿈의 씨앗 · 문소현

행복의 기준 · 문덕현

여름방학 시작과 캄보디아 의료봉사 · 이상협

힘들었던 일주일, 보람찼던 일주일, 그리고 기다려지는 의료봉사 · 권순길

38 포토뉴스

사진으로 다시보는 제3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입선작

44 삼행시 및 사행시 입선작

45 회무소식

제3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성황리 개최

참여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파트너십 구축 협약

경북북부교도소에 의료장비 기증으로 양질의 의로서비스 제공

50 회무단신

53 의리기관 개원현황

55 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주요사항(요약) 안내

59 분회 및 병원소식

62 학술칼럼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입증의 대상 : 인과관계 · 임좌혁

65 회원문예

수 필 _ 走車看山 230Km(남한강, 새재길 자전거 종주기) · 김광우

70 추천 음반

마법의 城 · 김광렬

주요연중 행사일정

2013. 4. 7	제41회 보건의 날 기념식	2013. 10. 13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2013. 4. 28	의협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2013. 10.	제51호 경북의사회보 가을호 발간
2013. 5. 9	제49호 경북의사회보 봄호 발간	2013. 10.	2013년도 회원명부 발간
2013. 5. 25~26	제3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춘계학술대회,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	2013. 11. 3	2013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2013. 5.	2013년도 회원정기신고	2013. 12.	연말 복지시설 방문
2013. 7. 23~28	해외의료봉사(캄보디아 프놈펜)	2014. 1.	시군의회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
2013. 8. 30	제50호 경북의사회보 여름호 발간	2014. 1.	제52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 발간
2013. 9. 8	의료봉사 기금마련 골프대회	2014. 2.	2013년도 전체이사회
2013. 9. 28~29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	2014. 3.	2013년도 회무감사
		2014. 3.	분회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사랑의 인술로 캄보디아 프놈펜 해외의료봉사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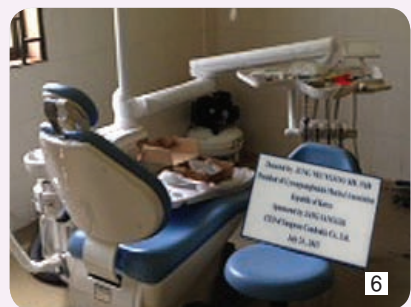
본회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과 기부문화를 통해 존경받는 의료인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존 구성되어 있는 의료봉사단을 더욱 활성화하여 소외된 지역민들을 비롯한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하여 첫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추진하였다.



1. 무사히 다녀오기를 바라며 꽃다발 증정
2. 캄보디아 이주여성 커소피씨에게 항공권 증정
3. 내빈들과 함께 기념촬영
4. 김관용 도지사, 정능수 회장, 송필각 도의회 의장, 노환규 회장, 장유석 단장의 인사



1.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에 도착 입국 수속
2. 왕립근의과학연구소에 도착하여 진료 준비
3. 한국감염관리본부 직원의 방역소독
4. 첫 진료에 앞서 의료진의 구수회의
5. 황정환 · 최예환 회원의 예진
6. 기중환 치과케어
7. 김석곤 회원의 객담검사 교육
8. 정선윤 회원의 소아청소년과 진료
9. 수술을 집도중인 장유석 · 양정민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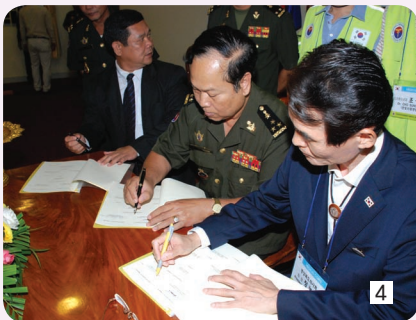


1. 환자들의 V/S 체크
2. 문해석 · 정기섭 회원의 치과 진료
3. 정능수 회원의 외과 진료
4. 김형환 · 심형신 회원의 한의과 진료
5. 김재왕 · 이홍우 회원의 내과 진료
6. 이우석 회원의 인과 진료
7. 위내시경 검사후 증상을 설명하는 김석곤 회원(안동MBC 영상 촬영)





1. 김장희 회원의 산부인과 진료
2. 박일영 회원을 비롯한 산부인과 진료팀
3. 김영란 약사의 조제 장면
4. 환자 접수 장면
5. 첫 날 진료를 마치고 분임토의
6. 의대학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
(정능수 회장, 김재왕 부회장, 정태균 회원)
7. 대구은행에 기증한 티셔츠를 입고 기념촬영
8. 장유석 · 문상용 회원의 외과 진료



1. NGO단체(MHA) 관계자들과 함께
2. 접수에 대기중인 환자들
3. MOU 체결을 준비중인 정능수 회장과 조성범 부회장
4. MOU협약 체결식
5. 캄보디아 씨엠립 한인회 주기병 회장과 간담회
6. 아라소스 훈센총리 특별보좌관(국회의원)과 간담회





캄보디아 현지 주민 의료봉사로 1,254명 진료

지난 2013년 7월 23일(화) 출정식을 시작으로 7월 28일(일)까지 4박 6일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왕립군외과 학연구소에서 일반과, 내과, 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안과, 영상의학과, 치과, 한의과 등 11개 진료 과목의 전문가가 참여해 “내 가족처럼 사랑의 인술로 진료 하겠습니다.”라는 타이틀로 어려운 이웃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한 희망니눔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현지인들의 건강을 체크했다.

이번 의료봉사단은 모두 63명으로 각 분야별 전문 진료인력 25명과 방역소독, 통역, 각종 행정지원 인력 38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봉사단에는 상주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 여성 커소피(27세, 2007년도

이주)씨가 동행하면서 친정국가 방문과 함께 봉사단의 통역과 안내 업무를 전담했다.

7월 23일(화) 오전 10시, 경북도청 대강당에서 시작된 출정식은 본회 정능수 회장과 장유석 봉사단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송필갑 경북도의회 의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김귀찬 경북지방경찰청장, 도내 보건 의료단체장 등 여러 인사들이 참석해 봉사단을 격려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 도착하여 하루의 여정을 쉬고 7월 24일(수) 오전에는 진료장소 점검 및 준비를 시작하여 각 과별로 오후부터 진행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왕립군외과학연구소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현지인들의 건강을 체크했다.



진료 첫날에는 현지주민 350명이 찾아와 진료하였으며, 이튿날에는 종일 진료로 904명 등 총 1,254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 이틀간 진행된 의료봉사활동에는 각 진료과별 기본 진료와 더불어 내시경·초음파·X-ray 등의 검사가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번 봉사활동에는 진료활동뿐만 아니라 왕립군외과학병원에 치과치료용 의자 1대와 에어컨 1대, 각종 의약품을 전달하고, 현지 주민들에게는 반팔 티셔츠(1,000매), 치약·치솔(1,000개), 비타민, 문구용품, 안경테, 어린이용 양말 등을 전달하였다.

또한 왕립군외과학연구소 대강당에서 교수진은 물론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능수 회장은 '새마을운동'에 대해, 김재왕 부회장은 '대사성증후군이란 무엇인가'와 정태균 원장은 '초음파를 통한 진단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해 한국의 선진의료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본회는 의료 지원과 치료 방법 전수, 의학 교육 과정 등을 제공하고 캄보디아 왕립군외과학연구소는 의료 활동에 대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와 조정을 담당할 것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과 왕립군보건연구소는 교육 및

학술 협력과 교류를 통해 두 기관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학술 및 교육 교류 협정으로 양 기관의 발전에 기여하는 MOU를 체결하는 등 첫 번째로 진행한 해외의료봉사를 성공적으로 전개했다.

본회 정능수 회장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냥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전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새마을 세계화재단의 정신을 받들어, 금번 의료봉사 장소를 왕립군외과학연구소를 거점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며, “대한민국에 시집은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친정국가를 방문하여, 사위가 장인, 장모에게 하듯이 나의 가족처럼 사랑의 인술로써 아픔을 치료함은 물론 선진의료기술을 전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외의료봉사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해외의료봉사의 취지를 밝혔다.

또 “뜨거운 여름날의 햇빛을 가슴에 머금고 그 열정과 더불어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캄보디아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의료 봉사 단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결과]

I 해외의료봉사활동 개요

| 주요경과보고 |

- 2012. 4. 1 제42대 집행부 출범
 ※ 역점 추진사업 : ①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의료계 변화 접목, ② 소통과 참여를 통한 화합, ③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과 기부문화를 통한 존경받는 의사상 구현
- 2012. 4. 1 제41대 이석균 회장 의료봉사기금 1천만원 기부
- 2012. 6. 14 제3차 상임이사회서 의료봉사단장 선임(장유석 부회장)
- 2012. 7. 7 경상북도의사회 임원 및 시군 의사회장 워크숍
 ※ 장유석 부회장 : '본회 의료봉사단 활동계획' 주제발표 및 의료봉사단 구성 필요성 논의
- 2012. 8. 23 의료봉사단원 모집 안내(각시군 의사회 및 병원 안내)
- 2012. 9. 2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기금 마련을 위한 제1회 회원친선 골프대회
- 2012. 9. 19 의료봉사단 추천 요청(각시군 의사회 및 병원 안내)
- 2013. 1. 10 해외의료봉사 준비위원회 구성(시군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
- 2013. 1. 22 해외의료봉사 전개를 위한 제1차 준비회의
- 2013. 2. 18 해외의료봉사 전개를 위한 제2차 준비회의
- 2013. 2. 22 경북보건단체 해외의료봉사 참여 요청 공문 발송
- 2013. 2. 25 해외의료봉사 의약품 지원 요청(제약회사 발송)
- 2013. 3. 18 해외의료봉사 전개를 위한 제3차 준비회의
- 2013. 3. 27 해외의료봉사 참여자 서류제출(여권, 임시면허증 발급을 위한 영문면허증)
- 2013. 4. 15 해외의료봉사 전개를 위한 제4차 준비회의
- 2013. 5. 15 해외의료봉사 전개를 위한 제5차 준비회의
- 2013. 6. 22 해외의료봉사 의료진 제1차 전체모임
- 2013. 7. 13 해외의료봉사 의료진 제2차 전체모임
- 2013. 7. 17 해외의료봉사 최종 점검회의

II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활동 개요

| 봉사일정 |

- 일 시 : 2013. 7. 23(화) ~ 7. 28(일) / 4박 6일
- 장 소 : 캄보디아 왕립군외과학연구소, Health science institute of R.C.A.F(Royal cambodian army forces)

| 슬로건 | '사랑의 인술로 내 가족처럼 치료 하겠습니다'

| 해외의료봉사단 출정식 |

- 일 정 : 2013. 7. 23(화) 10:10, 경상북도 대강당
- 참석자 1) 봉사단원 : 정능수 회장, 장유석 의료봉사단장, 의료봉사단원 등 63명
 2) 경상북도 : 김관용 지사, 송필각 도의회 의장, 김귀찬 경북지방경찰청장, 이인선 정무부지사, 정강수 보건복지국장, 담당계장 등

- 3) 보건의단체 : 권오흥 치과의사회장, 이재덕 한의사회장, 한형국 약사회장, 고순희 간호사회장, 황의동 심평원대구지원장
- 4) 본회내빈 : 노환규 의협회장,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포항의료원장), 김종서 대구시의사회장, 이한양 안동의료원장, 김영일 김천의료원장, 신기옥 경북적십자사 회장
- 주요내용 : 개회식, 경과보고, 회장인사, 격려사, 축사, 퍼포먼스(이주여성 친정국가 항공권 전달), 기념촬영 등

| 해외의료봉사활동 내용 |

1) 의료봉사 및 환자진료

- 진료과목 : 내과, 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안과, 영상의학과, 치과, 한의과 등 11개 진료과목
- 검사수술 : 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객담검사, 외과수술
- 기 타 : 약국운영, 환자접수, V/S Check 등
- 진료인원

구 분	7/24(수) 오후	7/25(목) 종일	총인원	비 고
인 원	350명	904명	1,254명	

2) 교수 및 의대생 대상 특강

일 시	연 자	제 목	비 고
7/24(수) 15:00~16:00	정능수 회 장	· 새마을운동	
7/25(목) 11:00~12:00	김재왕 부회장	· 대사증후군이란 무엇인가	
7/25(목) 15:00~16:00	정태균 원 장	· 초음파를 통한 진단방법	

3) 의료지원 및 인적교류를 위한 MOU체결

- 경상북도의회 및 왕립군외과학연구소 : 의료 지원과 치료 방법 전수, 의학 교육 과정 등을 제공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및 왕립보건연구소 : 교육 및 학술 협력과 교류를 통해 두 기관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학술 및 교육 교류

4)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전달

- 왕립군외과학연구소 : 치과치료 의자 1대, 에어컨 1대, 각종 의약품(140종), 기념품
- 현지 주민 : 반팔 티셔츠(1,000매), 치약 · 치솔(1,000개), 비타민, 어린이용 영양제, 문구용품(색연필, 연필, 수첩 등), 어린이용 양말, 볼펜 등

5)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친정 보내기 사업

- 대한민국에 시집온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친정 보내기 사업
- 대상 :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 여성 커소페(한국명 : 최혜진, 27세, 2007년도 이주)씨 동행
- 친정국가 방문과 함께 봉사단의 통역과 안내 업무 전담

6) 주요인사 접견 및 간담회

- 캄보디아 정부인사
 - ① 캄보디아 아라 훈센총리 특별보좌관(장관급) 및 국회의원

- ② 캄보디아 내무부차관 겸 경찰청장 속모니 중장
- ③ 캄보디아 내무부차관 겸 경찰청장 속모니 중장 참련 보좌관

- 캄보디아 왕립군의학연구소

- ① 왕립군의학연구소 소장 Dr. 론속훈 중장 ② 왕립군의학연구소 부소장 Dr. 림 밀리아 소장
- ③ 왕립군의학연구소 병원장 Dr. 까물 대령 ④ MHA 톱킴 단장
- ⑤ MHA 부단장 겸 왕립군의학연구소 교수 Dr. 마오헤이 중령

- 캄보디아 씨엠립 한인회 주기병 회장

7) 멸균방역 : 한국감염관리본부

- 왕립군의학연구소 진료실 및 강의실, 인근지역 현장 방역 지원
- 한국감염관리본부 구자용 소장, 최해룡 과장

8) 방송취재 : 안동MBC

III 해외의료봉사 주요 협찬 내용

- 대구은행 : 반팔 티셔츠 1,000장, 색연필 100타스
- 상주성모병원 황정환 원장 : 7/25(목) 만찬 지원
- 대구경북내과개원의사회(이성구 회장) : 100만원
- 경북외과의원 이재흥 원장 : 위내시경 기기 일체
- 제약회사 : 의약품 지원(39개 제약회사)
- 의료기기 : 초음파 2대
- (주)상우 캄보디아(장상익 대표) : 치과체어 300만원
- 한국감염관리본부 : 멸균소독 및 살균소독제 지원
- 심사평가원대구지원(황의동 지원장) : 물티슈(2박스)
- 문플러스치과의원 문해석 원장 : 치약 및 칫솔 1,000개
- KS옵틱 한창호 사장 : 안경테 100개

IV 해외의료봉사 참여자 (63명)

- 외 과 : 정능수, 장유석(신은희, 장유진), 김석권(김옥라, 김지현), 문상웅(박창미, 문준일)
- 내 과 : 김재왕(양순열), 이홍우(이상협)
- 성형외과 : 양정민(양제현, 양주현)
- 마취통증의학과 : 황정환(황수영, 황해조)
- 산부인과 : 김장희, 박일영(박정빈)
- 소아청소년과 : 조성범, 정선윤
- 안 과 : 이우석
- 영상의학과 : 정태균(정인영)
- 일반과 : 최예환(정신란, 최주은)
- 치 과 : 문해석(장란석, 문소현, 문덕현), 정기섭(이경희, 정재원, 정재민, 정수민)
- 한의과 : 김형환(김나현, 김재현), 심형신
- 간호사 : 고순희, 이숙희(이강주), 최진영, 김혜진, 안병희
- 약 사 : 김영란
- 행 정 : 박재영, 권순길, 김송희, 이지형, 최서현, 박본우, 이인영
- 방 역 : 구자용, 최해룡
- 영상촬영 : 서현, 배경탁
- 통 역 : 최혜진



캄보디아 프놈펜 해외의료봉사를 마치고...

캄보디아 프놈펜 해외의료봉사 후 안동MBC와의 인터뷰 방송 내용을 간추려서 실었습니다. <편집자 주>

Q1. 캄보디아 프놈펜에 다녀오셨잖아요. 우선 다녀왔던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경상북도의회 의료봉사단은 지난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4박 6일간 캄보디아 프놈펜 왕립군외과학연구소 산하 보건연구소에서 의사 15명, 치과 의사 2명, 한의사 2명, 간호사 5명, 약사 1명, 행정요원 5명, 방역소독요원 2명, 통역요원 1명, 가족 28명, 방송보도요원 2명을 포함하여 총 63명이 다녀왔으며, 말 그대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이번 진행된 해외의료봉사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뜻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첫 해외의료봉사는 경상북도의회 회원들의 정성이 모인 성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활동 기금모금을 위한 제1회 경상북도의회 골프대회를 통해 모금한 성금과 매달 일정액의 봉사기금이 계좌를 통해 적립되어 회원들의 정성이 모여 큰 기금이 되었습니다. 또한, 참여해주신 봉사단원 63명 전원이 비행기값 및 체재비를 자부담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 5개 보건단체, 즉 의사회, 치과 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회원들이 참여해서 경상북도 첫 해외의료봉사활동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것이 뜻깊었습니다.

Q2. 봉사활동을 떠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선택한 특별한 까닭이 있는지요?

기부문화와 봉사활동을 통해 존경받는 의사상을 구현하겠다는 생각으로 해외봉사활동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1년 동안 봉사기금마련 운동을 벌였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친정국을 방문하여 사위가 장인·장모에게 하듯이 “사랑의 인술로 내 가족처럼 치료하겠습니다”의 슬로건 아래 봉사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경상북도와 2006년도에 안코르와트-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한 인연이 있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다문화가족 이주여성 친정국 중 가장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모성 사망률, 영유아 사망률이 높으며, 경제적으로도 열악하여 경상북도 의료봉사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국가로 판단되어 첫 해외의료봉사국가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2007년 경북 상주에 이주하여 거주하시는 캄보디아 출신 커소피씨(한국명 최혜진 씨, 27세)의 모국방문을 지원했으며, 커소피씨 또한 이번 봉사활동에 통역업무 및 안내 업무를 전담하여 뜻이 깊었습니다.



정능수
경상북도의회 회장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선진의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Q3. 캄보디아라고 하면 크메르루주 대학살도 떠오르고, 오랜 기간에 걸친 내전, 그리고 최근 총선부정과 관련해 정국이 불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험하지는 않았는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1975년~1979년 사이 3년 7개월간 크메르루주 무장단체에 의해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 600만 명 중 3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사망하는 킬링필드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의료인 800명 중 750명이 사망하였으며 살아남은 50명 중 25명은 베트남 등으로 망명하고 25명의 의료인이 캄보디아 국민의 건강을 담당했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료의 현실은 열악합니다.

그리고 총선기간 중이라 정국이 불안한 것은 출국 전 미리 파악했습니다만, 우리가 의료봉사를 하는 기간중에는 총선선거운동 막바지로 대규모 오토바이 선거유세가 목격되었으나,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님께서 캄보디아 당국과 주 캄보디아 한국 영사관에 사전 협조 요청을 해주셨으며, 현지에서는 경찰 총수 이신 육군 중장 속모니장군께서 치안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의료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7월 28일 귀국한 다음 날 총선부정과 관련해 프놈펜 시내에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사히 봉사 활동하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Q4. 어떤 봉사활동을 전개 하신 건가요?

첫째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과 질병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8개 의과와 한의과, 치과 등 10개 진료과목의 전문 의들이 총1,25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둘째로 왕립군외과학연구소내 교수와 의과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이 있었습니다. 의사회장인 제가 “새마을정신”에 대해 특강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신한 지구상 유일한 국가이며, 그 근본에는 경상북도에서 시발 된 새마을운동인 것을 알렸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의 당뇨병 유병률이 한국보다 높은 10% 이상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부회장인 김재왕 원장께서 “대사중후군에 대해” 강의했으며, 경산의 정태균 원장께서 최근 첨단 진단기술인 “초음파를 통한 진단방법”에 대해 강의를 해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셋째, 경상북도의사회와 왕립군외과학연구소 간, 그리고 동국대학교경주병원과 왕립보건연구소 간의 의료지원 및 인적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넷째로 왕립군외과학연구소에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전달했습니다. 치과진료의 자(치과케어세트) 1개, 에어컨 1대, 140여 종의 의약품을 기증했습니다. 다섯째, 동행했던 한국감염관리본부 직원들이 진료실, 강의실 및 인근 지역을 방문하여 방역활동을 하였으며, 방역 장비 2대와 남은 소독약품을 기증하였습니다.



Q5. 주로 어떤 환자들이 많았는지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캄보디아의 수질이 안 좋아서인지 치과 환자가 많았었고 또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환자와 의외로 결핵환자도 많았습니다. 외과에서는 지방종 등 양성종양환자가 많았으며, 안과에서는 백내장 환자가, 내과는 주로 만성질환 환자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의료봉사 가던 첫날 공항에 마중 나왔던 NGO단체 중 한분이 식은땀을 흘리며 실신했었습니다. 본인은 이런 현상이 빈번히 있어 당뇨병으로 인한 저혈당으로 판단하여 사탕이나 설탕을 먹곤 했습니다. 봉사단 내과에서 진찰한 결과 부정맥을 동반한 협심증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향후 심장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도록 권유했습니다. 2년 전 부터 결핵진단을 받은 젊은 청년이 결핵약을 구입할 돈이 없어서 기침이 심하고 객담에 피가 날 때만 일시적으로 약을 구입해서 임시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봉사단이 가지고 간 결핵약 6개월분을 주고 왔습니다. 부디 향후 완치되기를 바랍니다.

Q6. 실제로 가보면 현지의 상황이 더 피부로 와 닿을텐데, 어땠나요? 많이 열악했나요?

보건위생 상태는 우리나라의 1970년대 수준으로 진료실과 의료장비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어서 청소도 깨끗이 하고 모기가 많아서 방역 후에 진료를 하였습니다. 각 진료실을 둘러봤는데 말 그대로 건물만 있고 실제 구비된 진료 장비는 열악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 중에 국산 메디슨 초음파기기는 10년 전 것인데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새것 그대로였으며, 이번 산부인과 진료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였고 성능도 우수하였습니다. 방사선장비는 필름 및 현상액이 없어서 가동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우리 봉사단이 진료동안 필름과 현상액을 구입하여 흥부촬영결과 선명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장지도 뜯지 않은채 창고에 방치된 혈액투석기를 보면서 가동할 능력조차 미비한 이 나라의 의료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Q7.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닮은 배우로 유명한 탤런트 박용식씨가 캄보디아를 다녀온 후 유비저균에 감염돼 사망했는데요. 우리 의료봉사단에서는 질병에 걸린 분은 없으시죠? 이참에 해외여행이나 봉사활동을 떠나는 분들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선임자로서 좀 알려주시죠?

해외여행시에는 그 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질병에 대해 사전에 예방접종을 하고 떠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캄보디아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최근 뎅기열등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셔츠와 긴바지를 입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봉사단은 아직까지 질병에 걸렸다고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해외의료 봉사활동을 계획시에는 반드시 그 국가 그 지역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의료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도와주는 관점에서 계획하셔야지 봉사활동이후에도 그 지역 의료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Q8.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국가간 우호 관계가 더 돈독해 졌습니다. 의료지원과 인적교류를 위한 경상북도의사회와 왕립군외과학연구소간, 동국대학교경주병원과 왕립보건연구소간의 MOU를 체결하고 그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해 실질적 도움을 주어 의료봉사활동의 효력이 오래가도록 극대화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의료기자재를 지원하여 양질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해외의료봉사는 의료진과 더불어 가족, 자녀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번 봉사활동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를 느끼게 하고 의료봉사를 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존경의 마음이 생겨 다음에 커서 나도 부모와 같이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현지 부유층들이 대한민국의 선진의료기술을 접함으로써 의료관광의 주춧돌을 놓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앞으로 기대해 보아도 될 만한 중요한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Q9.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도 좀 말씀해 주세요

경상북도의사회 · 치과의사회 · 한의사회 · 간호사회 · 약사회 5개 보건단체는 적십자사와 지난 8월 17일 사회공헌 파트너십 구축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료봉사도 하고, 주택개량, 우물과주기 등 노력봉사 등을 같이 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주위의 아픈 환자를 돌보는 5개 보건의료단체의 봉사정신과 모든 국민을 사랑하고 서로 돕자는 적십자사의 박애정신이 합쳐져 국익을 위해 큰 힘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의료봉사는 도내 5개 보건단체와 경북 적십자사와 함께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과대학생과 의대교수를 초청하여 동국대학교경주병원에서 선진 의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선진 의료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료봉사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의료기자재를 보급함은 물론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현지에 가보니 x-ray 기기는 있으나 필름이나 현상액 등 자재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핵환자는 많은데 치료약은 있어도 진단검사용 시약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장기적으로 현지 의료인 교육을 통해 자국민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의 나눔, 사랑 그리고 희망



* 봉사단 출발하기 까지

7월 23일 오후 7시 30분 인천공항 활주로

드디어 경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단이 탑승한 아시아나 비행기가 프놈펜을 향해 이륙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경북도청에서의 봉사단 출정식에서 김관용 지사님, 의협 노환규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빈분의 격려말씀과 박수를 뒤로하고 리무진버스 2대에 분승한 우리 봉사단은 간간이 비가 오는 가운데 예정대로 인천공항 출국게이트에 도착하여 산더미같은 박스를 카트에 싣고서 공항로비에 들어섰다.

먼저 도착한 김재왕 부회장 부부, 박일영 경산산부인과원장과 가족이 합류를 하였다.

봉사단 인원이 워낙 대규모여서 단원끼리도 얼굴을 완전히 익히지 못하여 연두색의 봉사단복과 모자는 우리 봉사단원임을 빨리 식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공항에서 패키지 여행 때처럼 각자 소개를 하고 신속한 인원파악을 위하여 조편성을 한 후에 출국게이트로 이동하였다.

출정식에서의 긴장이 풀렸는지 출국장에서 벌써 잠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탑승게이트 앞에서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금번 봉사단 활동을 위하여 준비한 일들이 하나하나 영상처럼 지나간다.

작년 9월 2일 상주블루윈C.C.에서 열린 사회공헌 봉사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시작으로 봉사기금 구좌 1인 1구좌이상 개설운동이 우리 회원들 중심으로 열정을 모아 갈 때만 해도 해외의료 봉사활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였다. 오로지 다문화 이주민 여성 친정국가 방문 의료봉사를 목표로 세운 것 뿐이었다.

우리 경상북도의사회에서의 사회봉사활동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활동은 우리 회원들간에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제41대 이석균 회장께서 공식적인 봉사단의 조직과 체계적인 활동을 제안하여 경상북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을 공식 출범시키면서 1,000만원의 봉사기금을 현증해 주셨고, 김광만 현 의장님이 초대 봉사단장을 맡아 봉사단 출범과 활동에 큰 열정을 보태셨다.

2012년 현 정능수 회장께서 취임 하시면서 더욱 체계적인 봉사 모습과 기부문화를 통해 존경받는 의료인상을 구현하고자 기존 구성되어있는 의료봉사단을 더욱 활성화하여 소외된 지역민들을 비롯한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기 위하여 해외의료봉사를 기획하면서 경상북도의사회 해외의료봉사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



장유석 부회장
경상북도의사회 의료봉사단장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

지난 1월부터 출발 직전까지 7회에 걸쳐 준비회의를 하면서 봉사단 구성원, 봉사활동 기간, 날짜, 봉사지역, 참가 범위, 봉사내용, 소요경비 등을 결정하는데 회장님의 열정적인 관심과 김재왕 부회장, 조성범 부회장, 황석순 부의장, 문상용 총무이사, 이재흠 재무이사 등 여러 준비 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금번 캄보디아로 첫 해외 의료봉사가 결정된 것이었다. 회장님께서도 유관단체장을 일일이 만나셔서 협조를 요청 하셨으며 상임이사들도 적극적으로 제약회사에약품기증 권유로 금번 봉사단 물품은 하나하나 모아지게 되었다. 또한 황정한 부회장의 치과 체어 기증으로 진행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런 저런 상념속에서 프놈펜국제공항 착륙을 알리는 멘트가 있고 곧 비행기는 착륙하였다. 프놈펜의 밤은 후덥지근하고 무더웠지만 우리는 이미 한국에서 무더위에 면역된 상태로 왔기에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공항에는 우리 봉사단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고 무사히 물품통관을 하도록 큰 관심을 보여준 내무차관이며 경찰 총수인 숙모니 중장이 반가이 마중을 나왔으며 잠시 환담 후 곧 숙수인 그린팔레스호텔로 이동하여 여장을 풀고 내일 일정을 그리면서 꿈속으로 들어갔다.

*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진료 첫째 날

아침식사 후 봉사단원들 모두 분주히 약품 및 기자재 박스를 일일이 버스에 싣고 진료장소로 결정된 프놈펜 왕립군외과학연구소로 이동하였다. 차창에 비친 프놈펜거리는 오토바이와 툽툽이(오토바이를 개조하여 만든 교통수단) 천국이었으며, 교통규칙은 아예 생각 안하는 것이 마음 편할듯 하였다. 중앙선은 의미가 없었으며 자연스럽게 반대차선을 달리곤 하였다.

이런 낯선 광경을 흥미롭게 보면서 진료장소에 도착해 보니 그곳은 이미 대기환자들로 어림잡아 백 명 이상은 될 듯하였다. 그 곳 NGO관계자인 Mao교수(이비인후과 전문의, 봉사 기간동안 우리 의료봉사에 적극 도와준 분)와 왕립군외과학연구소 산하 왕립보건연구소 병원장인 Dr. 까물 대령(열대의학 전문의)을 비롯하여 많은 현지관계자들께서 우리봉사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간단한 서로의 소개가 있는 후 각 진료실을 둘러봤는데 말 그대로 건물만 있고 실제 구비된 진료장비는 열악

하기 그지없었다. 그 중에 국산 메디슨 초음파기기는 10년 전 것인데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새것 그대로였으며(산부인과 진료에 김장희 원장과 박일영 원장이 유용하게 사용하였다함, 성능도 우수했다고 함), 방사선장비는 필름 및 현상액이 없어서 가동 하지 않은 상태였다(나중에 우리봉사단이 진료동안 필름과 현상액을 구입하여 흥부촬영결과 선명하게 나왔으며, 그 사진을 보면서 그곳 의사들이 도우미로 나온 학생들에게 즐거운 표정으로 사진설명을 하였음). 그리고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 창고에 방치된 혈액투석기를 보면서 가동할 능력조차 미비한 이 나라의 의료수준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곳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킬링필드시절 유능한 의사들은 대부분 처형되었으며, 그나마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일부의 의료인력으로 질병을 치료하기에 의료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상상하기 힘든 비싼 치료비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의 기회조차 갖기 힘들다는 것이다.

갑자기 풍부하고 우수한 의료인력, 첨단 의료기술과 기자재, 저렴한 의료비에 언제나 이용가능한 병원들이 항상 우리곁에 있는 대한민국이 생각났다. 의료수준 대비 의료비에 관한 한 OECD국가 중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났다. 그리고 한여름 이 순간에도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친절히 설명하고 진료에 최선을 다 하면서도 실비(?)로 치료를 베풀고 고군분투하시는 우리의 동료, 선후배 의사선생님들 생각도 났다.

텅 빈 진료실 마다 우리가 준비해온 기자재, 약품을 셋팅하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배꼽시계가 점심 식사 시간임을 알려줬다. 뜨거운 햇살아래 우리가 진료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순박한 프놈펜 주민들에게 우리 봉사단은 빵과 시원한 생수를 대접하면서 진료시간을 가급적 당겨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일단 시범적으로 환자 45명을 진료하기로 하고 어떤 문제가 미비되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는데 아뿔사 예상대로 군데군데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점심식사 후 회장을 모시고 각과 책임선생님들과 구수회의를 긴급히 가졌다.

오후 1시 30분경 드디어 진료가 시작되자 기다렸듯이 환자들이 몰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각과는 숨쉴틈 없이 진료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접수에서는 환자와 통역이 어려운 것에 대비하여 황정한 부회장 처가댁(프놈펜에서



사업)에서 현지어에 능숙한 선교사 5명을 파견해주어서 고 순희 간호사회 회장님의 책임하에 잘 진행되었으며, 예진 및 마이탈 기록에서는 최예환 원장과 우리 봉사단 가족들이 잘 진행해주었다.

내과에서는 위내시경, 초음파 등을 김재왕 부회장을 비롯하여 이홍우 원장, 김석곤 원장, 정태균 원장과 간호사, 우리 봉사 가족들은 밀려오는 환자진료에 여념이 없었다.

외과, 성형외과에서는 문상웅 총무이사, 대구의 양정민 티파니성형외과원장(경산 준ENT의 정선민 원장 부군)이 같이 mass 제거 수술을 여러명 하였으며, 현지 의대 학생들에게 수술을 참여하게 하였다.

안과에서는 이우석 의무이사께서 복도를 따라 길게 줄지어 선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진땀을 흘렸으며, 치과에서는 우리가 기증한 치과체어에서 발치뿐 아니라 충치치료, 스케일링 등이 문해석·정기섭원장의 정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까물 병원장의 어린 아들이 치과 치료를 받은 후 기뻐서 꺽충 꺽충 뛰는 모습은 지금도 인상 깊게 남아있다.

한방치료는 특히 인기가 높아서 침, 뜸을 통하여 환자들의 통증을 줄여주는데 김형환·심형신 원장께서 무척 수고하셨다. 산부인과는 김장희·박일영 원장께서 메디슨 초음파 기기를 활용하여 현지 주민들의 부인과 질환을 잘 치료해 주셨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조성범 부회장, 정선윤 원장께서 아픈 어린이들 치료에 쉴틈이 없었으며, 특히 탈수증 어린이는 링거 수액을 맞기도 하였다.

그리고 김영란 약사는 그 많은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하느라 이마에 땀을 계속 흘렸으며, 간호사분과 사무처 박재영 처장, 권순길 부장과 직원들, 의료진 가족들 모두 있는 힘을 다하여

환자들을 안내하였다.

대부분 환자들은 진료받기도 어렵고 약을 구하기도 힘들어서 3~4개 과의 진료를 받고 약을 가득 받아갔으며, 더불어 구충제, 반팔 티셔츠, 치약, 치솔, 영양제등을 함께 선물로 한아름 안고 가는 발걸음은 가벼웠으며, 거듭 감사함을 표시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나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얼굴표정은 항상 밝게 보였으며 행복지수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높다는 점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점이라 하겠다.

한편 오후 3시에는 왕립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능수 회장님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특강이 있었는데 상주로 시집은 캄보디아 이주민 여성인 커소피(한국명 최혜진)씨의 유창한 통역으로 회장님의 강의내용을 완벽하게 전함으로써 뜨거운 호응이 있었으며 강의시간동안 졸고 있는 학생이 한명도 없이 모든강의 내용을 귀담아 듣는 장면을 통하여 캄보디아의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진료마감시간이 임박하였는데도 진료를 받기위해 멀리서 와서 장시간 줄을 서 기다리는 환자들을 내일 다시 오라 할 수는 없어서 끝까지 진료를 하다보니 마감시간을 훨씬 넘겨 첫째날 진료는 350명을 치료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허기진 배를 현지식으로 맛있게 채우고 숙소로 와서는 분임토의시간을 갖고 내일 진료를 대비하여 잠을 청하였다.

* 봉사활동, 진료 둘째 날

일찍 기상하여 숙소에서 내다본 프놈펜의 아침은 캄보디아 수도답게 분주한 모습이었다. 바쁘게 오토바이와 툽툽이들의 이동모습이 인상적이었으며 우리 한국과 달리 산과 언덕이

우리 경북의사회 의료봉사단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과 기부분화를 통해
존경받는 의료인상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없이 평지르만 이루어진 도시의 모습에 이 나라에서는 아웃
도어 옷과 장비는 팔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식사를 간단히 마친 봉사단원들은 다시 버스 2대에
나뉘 타고 진료장소로 이동하였다. 9시가 채 되지 않았는
데 천막아래에는 벌써 수백명은 죽히 될 정도로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제 분임토의에서 약국을 내과가 위치
한 건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났기에 약국이
이사를 하느라 약간의 번잡함이 있었지만 곧 진료가 시작
되었다.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빨리가는 줄 몰랐다. 각 과에서
는 정신없이 환자를 맞이 하였다.

방역팀은 어제부터 병원 구석구석 소독약을 살포하기
시작하였으며 오늘은 인근 마을에도 방역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오전에는 김재왕 부회장께서 아시아인의 대
사성질환(당뇨병을 중심으로)에 대한 특강이 왕립의대 교
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있었다. 유창한 영어로 귀에 쫄쫄
들어오도록 명강의를 해주신 덕택에 의대 교수측에서 강의
과일을 줄 수 없겠느냐는 요청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순간 우리 회장님께서 금번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기획하시면서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 보다
물고기를 잡는법을 전수 하는 것이 더 나을것이다 라는 말
씀이 갑자기 떠올러지면서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의 의료봉
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본다.

점심식사 후 오후에는 경산대경영상의학과위원의 정태균
원장께서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진단에 대한 특강이 있었는
데 이 강의 역시 열띤 호응을 받으면서 캄보디아에서는 접
하기 힘든 분야인지 많은 관심을 보였다.

환자들이 계속 밀려드는 가운데 성형외과 양정민 원장이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되더니만 화장실을 들락거리면서
설사를 호소하기에 급히 링거수액제를 맞고 안정을 취하기
도 하였다.

이윽고 진료마감시간은 다가오는데 환자들이 기다

리는 줄은 계속 이어지고 그 숫자는 줄어들지를 않아 마감
후 예정된 동국대경주병원과 왕립의대 간의 의료교육에 대
한 MOU 체결식에 단원들의 참석 관계로 갑자기 고민이 깊
어지기 시작했다.

할 수 없이 환자진료를 마친 진료과의 단원들만 참석하기
로 하고 안과, 치과, 한방과 등은 끝까지 진료를 하기로 한
결과 둘째날은 무려 904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우리봉사활동을 총괄 안내한 내무차관이며 경찰총수인
속모니 중장, 왕립군의과학연구소 소장인 Dr. 론속훈 중장
을 비롯한 많은 캄보디아 관계자들의 감사 환송사를 1시간
넘게 들으면서 MOU체결식은 예정시간보다 무려 1시간이
상 늦게 마쳤으며 남은 약품은 왕립군의과학연구소와 NGO
단체, 선교사단체에 기증하였다.

이날 저녁식사는 황정한 부회장 처가택에서 주선한 것
으로 매우 늦은 시간에 식당에 도착하여 맛있는 음식을 즐
겼으며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 봉사활동을 마치고**

총 1,254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프놈펜 의료 소외지역의
실질적 의료제공, 영양부족 소아영양제지원, 의료시설 및
인근지역 감염관리와 방역지원, 의료인력 지원교류 MOU
체결 및 의료장비지원, 다문화가족 친정국가 방문 및 통역
업무지원 등의 2013년 캄보디아 의료봉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그 소중한 순간 순간은 동행취재해주신 안동MBC
기자 두분에 의해 영상기록물로 남겨질 것이며 금번 봉사
활동이 뜻한바 대로 이루어지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전하며 물품을 정성으로
기증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우리 경북의사회 의료봉사단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과 기부분화를 통해 존경받는 의료인상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랑은 실천하여야 꼭 열매를 맺는다



플라톤이 말하는 다섯 가지 행복이란 재산, 명예, 외모, 실력, 체력이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라고 하는 글을 읽고 문외한 입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펜을 잡았다.

을 2월 경상북도의사회 주관 해외의료봉사 동참 요청 공문과 함께 정능수 회장님으로부터 도내 보건 5개 단체 모두 참석해서 경북보건단체 의료봉사의 첫 걸음을 단합된 마음으로 힘차게 내딛어 보자는 적극적인 권유를 받았다.

5개 보건단체장 간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적극적 지원을 합의한 후 논의는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이런 의료봉사를 늘 꿈꿔오던 터라 경북간호사회에서 제일 먼저 신청하게 되었다.

정해진 날은 꼭 오고야 말지요!

날씨가 점점 다가오니 염려와 걱정들이 조금씩 앞서기 시작했다. 모기, 황열, 뎅기열, 언어, 건강, 더위 등등.... 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열심히 챙겨먹고 운동하며 체력을 단련하였다.

사전 전체 진료 팀 회의가 있던 날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정확 하던 의사회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 간호학과 교수들은 여자들이라서 너무 꼼꼼 하고 철저하고 빈틈없어 회의를 몇 시간씩 밤이 늦도록 하는데 의사회 회의는 진료를 마치고 모였고 또 남자들인데도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던지 회의를 장장 6시간 이상씩 진행하며 밤 11시 넘어서 마치고나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 하는구나!! 정말 믿고 우리의 건강을 맡겨도 되리라 확신을 하며 다시 감동했다.

드디어 출발의 날이 왔고 도지사, 도의장, 경찰청장, 보건단체장 등등을 모시고 도청강당에서 출정식을 하였다. 나는 꽃다발 받으며 섬김의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고 순 희 회장
경상북도간호사회
포항대학교 간호과 교수

캄보디아 평균 날씨가 35-37℃라는 사전 정보를 듣고 은근히 걱정을 하면서도 지겨운 닭장 속 5시간을 숙면으로 보내고 프놈펜 공항에 도착하였다. 마중 나오신 캄보디아 속 모니 장군의 환대를 받으며 정능수회장님과 임원 몇 분과 저는 VIP실로 통과하여 환담을 나누며 입국하였는데 조금은 색다른 느낌이었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제 마음의 초점이 맞추어 지기를 기대하며 공항을 나섰다.



환자 진료는 7월 24일 시작되었다.

왕립군외과학연구소에서 오전에 진료 준비를 세팅하고 진료는 오후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진료 준비를 세팅하고 있는 동안 이미 100여명의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빠른 진료 시작을 위해 사전 모의진료를 해보았지만 문제점이 파악되었고 점심식사 후 회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 진료를 했는데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었다. 역시 모의가 필요하고 사전 점검이 꼭 필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환자를 직접 간호한지가 참으로 오래되었다. 임상을 떠난 지가 20여년이 되었고 더구나 의사소통도 제대로 잘 안 되는 환자를 어떻게 간호해야 할까 심히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막상 환자들을 바라보니 마음에 요동이 오면서 가슴 뛰는 옛 열정이 쏟아졌고 머리에는 질서정연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여 선교사 목사님께 통역을 부탁하고 접수기록지에 이름과 주 증상 등을 기록하도록 부탁하면서 진료실의 대기 환자 수를 조절하여 환자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다. 비록 몸이 아파서 진료를 받으러 왔지만 캄보디아 국민들의 순수함과 착함과 온순함과 또 웃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다. 없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가진 것이 불행이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라는 플라톤의 말을 캄보디아 국민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7월 25일 이틀째 진료는 찌는 듯한 폭염 속에 시작되었다. 환자 접수를 하는데 땀이 비 오듯 주룩주룩 흘렀고 갈증과 탈수 예방을 위해 물을 계속 마셨는데도 화장실에 갈 필요가 전혀 없었다. 천막 속에서 캄보디아 국민들의 밝은

모습을 보니 행복해 하는 저들 마음속으로 나 자신도 함께 행복의 여행을 하고 있는 듯하였다. 짧아서 오히려 아쉬웠으나 정말 보람찬 의료봉사 기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간호사의 달란트를 가지고 오랜만에 마음껏 환자들과 동료들을 섬기게 되어 기쁘고 행복했다.

진료가 끝나고 문득 “사랑은 실천하여야 꼭 열매를 맺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120년 전 알렌 의료선교사를 통하여 의료혜택을 받게 되므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지속적인 발전이 계속 되어왔다. 이제 우리도 이웃나라에 의료기술도 전하고 교육도하고 진료도 하는 재능 기부를 하는 나라로 발전하였다.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다!

또한 정능수 회장님과 장유석 단장님, 조성범 부회장님을 비롯하여 21분의 원장님들의 세심하시며 친절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허용 할 수 없는 자세로 첫 의료봉사를 완벽하게 척척 해내시는 것을 보고 감탄과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함께한 가족들, 어린 학생들이 정말 대견스러웠다. 눈빛만으로 모든 일을 척척 보조해 주었던 아름답고 재치 있는 손길이 있었기에 의료봉사가 더욱더 의미가 있었다. 함께 했던 젊은 간호사 3명과 심병원 간호사, 역시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신뢰받고 존경받는 간호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고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깨끗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 전에 메콩강 유람선을 타고 낙조를 보며 시원한 메콩강 바람에 피곤을 날려 보내고 캄보디아 국민의 행복해 하는 웃음만 가슴에 간직하면서 다음 기회에 또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잡길 희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경북의사회 파이팅!!!!



뭔가 특별한 게 있었던 의료봉사

시작은 그리 거창하지 않았다. 의료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그저 중학교 2학년 딸과 초등학교 4학년 아들에게 한국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준비하는 시작부터가 기존에 내가 경험했던 의료봉사와는 너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출발 4~5개월 전부터 의사회 사무실에서 5차에 걸친 전체회의가 있었는데 모일 때마다 3시간 이상의 연장 회의가 이어졌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경북 각 지역 개업의들이 정해진 시간에 참석해 열정적으로 원탁 회의석상에서 의견을 나누었고 봉사 중 업무와 준비물에 대해 꼼꼼히 준비하는 모습이 나에게서는 아주 인상적이었다. 경북의사회에서도 기존에 행해지던 사업이 아니었기에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해가는 과정이었다. 저렇게 많은 장비를 정말 가지고갈 생각인가? 과연 봉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을까? 의문 반 놀라움 반이었다.

물론 종합병원에서 의료봉사를 추진하고 차량으로 이동한다면 더 좋은 장비에 더 많은 소모품으로 양질의 진료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봉사를 할 곳은 비행시간만 5시간 넘는 캄보디아이고 봉사에 참여하는 각각의 멤버들도 개인적인 업무가 많은 개업 원장님들이다. 본인들의 병원에 있는 내시경, 초음파 진단기, 수술도구 등을 스스로 준비했고, 그곳에서 처방할 엄청난 양의 약도 손수 약속 처방으로 미리 대비했다. 의사회에서는 유니트 চে어를 벌써 현지로 기증을 해 치과 진료에 차질이 없게 하였다. 한마디로 준비과정부터 특별했다.

출발 당일의 인천공항에서는 60개가 넘는 플라스틱 택배박스를 각자가 3~4개씩 카트에 싣고 나르기 시작했고 의사, 간호사, 초등학생, 중고생 할 것 없이 모두들 개인적으로 의료물품을 옮겼다. 무거운 의료기와 소모품을 수하물로 붙이는 까닭에 가족 당 2~3개씩의 캐리어는 모두 기내로 들고 들어가는 진풍경도 연출되었다. 더 이상 좌석 위 수납공간에 가방을 넣을 수 없어 비행기도 한참 동안 출발을 못하고 있었다. 출발 또한 심상치 않은 특별한 뭔가가 있었다.

이렇듯 준비과정과 규모, 의료봉사에 임하는 사람들의 진지함이 뭔가 특별한 의료봉사이었듯이 이런 환경에서 진료하면서 느낀 점 또한 특별한 게 있는 봉사였다.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의료봉사는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찾아가 그 사람들의 불편함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형환 원장
현대한의원(경주)

오래전 전공의 시절, 모교병원에서 주최한 미얀마 해외 의료봉사에 내과, 피부과 전공의 선생님들과 함께 참여했었다. 그 당시에도 그 곳 사람들의 열악한 의료 환경에 안타까워 했고 열심히 진료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기에 그 일에 열중하였고 참여한 다른 선생님들과 서로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본 봉사를 주최한 경북의사회에서는 의료봉사에 대한 나의 생각을 한 단계 더 성숙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 후진국의 의사들을 교육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교육하고 전달하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교육할 계획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의사회장님과 내과, 영상의학과 원장님의 강의가 현지 의대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곳 의대생들의 눈빛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도로 진지했고 새롭게 듣는 모든 것에 대해 흥미로워 하는 모습이였다. 선진 의료기술을 전달해준다는 것은 의료봉사의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있고, 앞으로 의료봉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한의사인 나에게서는 부럽기까지 한 본받을 점이였다. 훗날 우리 한의사들도 의료 후진국을 대상으로 한의학을 강의할 날이 오기를 기대했고 언젠가는 추진하고 싶어졌다.

물론 필자가 봉사과정을 너무 지엽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최근의 의료봉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 더 많이 놀라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계속 글을 이어가 본다.

또 하나의 의료봉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환자들의 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미얀마 의료봉사 때를 생각해 보면 양곤(미얀마 수도)에 족저근막염 환자가 다 모여 사는지

착각할 정도로 족저근막염 환자가 많았다. 얇은 슬리퍼나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유였고 많은 사람들의 발바닥을 하루 종일 치료했던 경험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그분들에게 변변한 신발 하나씩 제공하는 게 더 나아왔 지도 모른다는 역설적 상상을 지금 해 본다.

이번 캄보디아에서는 동통환자 위주로 진료를 보았고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척추 신경근병증을 보이는 환자, 긴장형 두통, 무릎 퇴행성관절염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과거 봉사할 때와는 다르게 진료하던 내내 이들에게 과연 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했었다. 단발적인 치료와 통증경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일까? 평소 생활습관과 자세,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설명해주고 적정체중과 운동의 중요성 등을 전달하고자 애를 많이 썼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의료봉사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성숙인 것 같다.

준비한 침, 과립제, 환약 등을 다 소비하고 왔지만 그분들은 지금쯤 똑같은 증상을 되풀이 하고 있을 거라는 언짢은 기분이 불현듯 든다.

생색내는 몇 일간의 치료보다 환자와 일반인을 위한 교육, 현지 의사들에게 지식 전달, 진단기기를 이용한 평생 모르고 지낼 수도 있는 질환 발견 등이 결국에는 의료봉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경북의사회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간을 마련했다는 생각이 들며, 같이 참여한 분들로부터 받은 환영과 정성을 나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향후에도 많은 한의사가 의사사회에서 행해지는 의료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캄보디아에서의 느낌을 잘 전달하는 것이 나의 소임

서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앙코르와트 입구의 거대한 해자에서 찍은 사진은 역광이라 그런지 음영 속에서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주는 듯하다.

천년의 역사와 미스터리를 담고 있는 밀림에 묻힌 앙코르와트는 관광객과 내리쬐는 햇볕을 무색케 하는 어떤 편안함이 있었다.

2013년 여름, 이곳 경주를 포함한 경북지역의 날씨는 유난히 더웠다. 그러나 더위를 개의치 않고 나섰던 만큼 발걸음은 가볍고 날씨마저도 그다지 덥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순탄했다.

약 두 달 전부터 몇 차례의 세심한 사전 회의를 거쳐서 2013년도 경북의사회 해외의료 봉사 활동이 구체화 되었다. 봉사하는 의료인을 구현하지는 경북의사회 회장님, 단장님을 비롯하여 캄보디아에 수년간 봉사활동을 해오신 경주 한빛아동병원 조성범 원장님과 각계 의료계 인력과 캄보디아 출신 커소피 씨, 방송국, 방역팀 등의 합작품이다.

밤늦게 처음 방문한 캄보디아 프놈펜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시선을 끈 것은 약 50cm 높이의 불상이었다. 미얀마, 스리랑카 등 소승불교의 불상은 다소 마르고 검소한 인상에 보일락 말락 짓고 있는 미소가 수행승처럼 단정하고 오묘하다.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된 한방과 진료실의 의료 활동은 김형환 원장님과 나, 마취통증 의학과 담당하신 황정환 원장님과 그리고 주사실을 담당한 세명기독병원의 김혜진 간호사, 동행한 최서현 선생, 초등학교생인 재현이의 도움과 프놈펜 왕립의과대학 학생인 슈리엥, 멘충, 임(yeom) 등의 통역으로 이루어졌다. 이곳 캄보디아는 삼모작이 가능할 정도로 강한 일조량과 높은 습도, 사계절 고온의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동의보감의 화열과 습사로 인한 병기가 많을 것이라 예상되었다. 우리 일행이 방문한 시기는 우기에 해당했지만 스콜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 전세계적으로 건조해 지는 기후를 짐작할 수 있었다.

예진실의 분류를 통해 온 환자들은 사지의 저림, 요통, 경추 통증, 두통, 비염, 숨참, 냉증 등으로 주소가 다양했으며 이들에게 익숙치 않은 침구치료를 설명하고 맥진을 통해 가능한 적절한 변증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근골격계 환자는 우리나라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퇴행성 질환이 흔하고 척추관협착증 등의 요각통 질환이 많은 것도 공통점이지만, 유난히 강한 태양광선 때문인지 대부분의 중년층 이상이 시력감퇴나 계관현육, 복시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고온으로 인해 심폐 기능 저하로 숨참이나 가슴답답감(흉비)을 호소하는 분도 여럿 있었으며, 긴장성 두통이나 현



심형신 원장
남산한의원(경주)



훈 같은 경우 방광정격으로 소견되는 환자분을 여럿 볼 수 있었다. 더위에 저하된 기력을 살리는 생맥산이나 항진된 심기능을 진정시키는 천왕보심단, 상열을 내리는 청상견통탕 등도 진단에 따라 처방되었다.

선글라스 등 시력을 보호하는 장비나 적절한 안과진료, 그리고 화열을 내리고, 음혈 부족을 개선하는 침술 등이 지속적으로 시술된다면 건강증진에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우리 일행이 프놈펜을 방문한 시기에도 고급 대형 병원들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중산층 이상이 진료를 받는 일은 어렵지 않겠지만, 빈민들의 의료는 여전히 당분간 무방비에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다.

이들간의 진료가 부족한 점도 많았겠지만, 밝은 얼굴로 치료를 받고 나서 내 손을 잡아주며 오래 살라고 덕담해주는 분들 모습에서 옛날의 우리나라 어른들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얼굴에선 70~80년대 어디서나 볼 수 있던 해맑고 밖에서 무리지어 놀기 좋아하던 우리 아이들의 미소도 찾아볼 수 있다. 사진 속에 밝게 웃고 있는 캄보디아 학생들과 왕립의대 의료진과 우리 의료진. 정치, 사회적 시스템이 진화하고 경제수준이 상승하고 의식이 발달하여도 근심없는 표정만큼은 역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사람사는 세상이다.

한때는 앙코르 제국의 영화를 자랑했고 지금도 묻혀있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림과 역동적인 인적자원을 담고 있는 이 소박한 나라, 어린 꼬마아이들까지 구걸이나 부업전선에

나서고, 신발이 없는 맨발의 행인들도 목격되지만 행복지수만큼은 전세계 3위라고 하지 않았던가.

참고로 앙코르 왕국은 12세기 초에는 인도차이나 최강 대국으로 전성기를 구가했고 당시 모든 왕은 시바의 화신이라는 힌두교와 신왕사상이 지배적이었다. 앙코르와트의 사원 벽 회랑을 따라 계속되는 부조에는 힌두 신화와 라마야나, 마하바라타의 거대한 서사시가 담겨 있다. 영화 화양연화에서 해지는 오후, 양조위가 자신의 감정을 묻었던 사원의 벽도 이곳 어딘가일 것이다. 이후 태국의 침략으로 거대한 제국은 멸망하고 이후 100년간 밀림에 뒤덮여 있다가 앙리 무오라는 프랑스의 탐험가가 책을 써서 널리 알려진 것이 오늘날의 앙코르 와트이다.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캄보디아에서 보인 것은 끝없이 펼쳐진 논밭과 황토 물의 거대한 톤레삽 호수, 그리고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애용하는 많은 인구, 더위와 모기들이라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느낌에 가까운 것으로 역사 속의 영화와 부침을 겪으면서도 동일한 존재감에서 오는 무상함, 사회가 다원화되기 전의 소박함과 역동감과 같은 것들이다.

불상과 암사라의 미소는 모나리자의 미소보다도 증거를 잡기 힘들만큼 불분명하지만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한 느낌을 안겨주듯이, 다시 일상속으로 돌아온 지금도 캄보디아에서의 순간들에서 느꼈던 이 평화를 나의 삶 속에도 다른이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나의 소임이라는 작은 생각을 해 본다.

캄보디아 고국 방문으로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모국인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해주신 경북의사회 정능수 회장님을 비롯하여 치과 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약사회 그밖에 여러 기관의 선생님들과 그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박 6일 동안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각 과별로 성심껏 진료를 해 주시고,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영양제를, 마을에는 방역까지 도움을 주시려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한국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봉사활동 외에도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된 새마을운동 교육과 캄보디아 의료진 및 왕립군외과학연구소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캄보디아 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초음파를 통한 진단, 대사성증후군에 대한 강연을 해주셔서 의료진과 의과대학 학생들이 한국의 선진 의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의술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들으려는 모습을 보면서 캄보디아의 의술도 한국처럼 발전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한정된 시간이라서 다른 좋은 내용의 특강이 좀 더 열리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한국에 거주한 시간이 6년 밖에 되지 않아 한국어 실력이 많이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고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의료봉사 활동의 통역 담당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지만 해외 의료봉사는 처음이었습니다. 봉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많은 분들의 봉사와 희생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의학용어를 잘 몰라서 정확한 의사소통에 불편한 점이 많으셨을 텐데 모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는 좀 더 나은 모습, 좀 더 나은 한국어 실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놈펜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 저에게는 이번 해외의료봉사 활동의 통역을 담당하며 보낸 시간은 잊지 못할 시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캄보디아를 비롯한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기후와 음식, 환경도 맞지 않아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돌아오는 날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을 의술로 봉사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저희 아이들도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해외 의료봉사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커 소 피(최혜진)
상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지원사

진짜 봉사는 지금부터...



의료봉사라는 생소한 경험은 올해 내가 한 일 중 가장 보람있는 일이었다.

덥고 습한 나라, 캄보디아는 생각만큼 덥지 않았고, 의료봉사라고 해서 의료인만이 가는 것도 아니었다. 내게 주어진 업무는 접수 그리고 안내였다.

캄보디아인들을 순서대로 부르고, 이름·나이를 적고, 문진을 하고, 구충제를 먹이고, 그리고 예진으로 보내는 일까지가 접수의 일이었다. 접수는 진료의 첫 단추로 일의 전반적인 흐름을 통제하면서 하야야 했다.

나는 문진 옆에서 구충제를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먹으라고 주는 구충제를 비싼 돈을 받고 판다던가, 소중한 것인양 집에 모셔(?)두기 까지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생활환경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더군다나 진료안내문에 적힌 “구충제”라는 단어에 아무리 손짓, 눈짓을 해도 그저 나를 보며 방긋 웃기만 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오히려 통역에게 되묻는 듯한 대화가 여러번 오가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 글을 모르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대답은 예상 그대로 “yes” 였다.

진료를 돕고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캄보디아어로 만들어 왔던 진료안내문은 그저 접수증으로 알고 소중히 다루는 종이에 불과해졌다. 의료시설만큼 교육수준이나, 생활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했지만, 직접 부딪쳐보니 더욱더 안타까웠다.

의사회에서 준비한 티셔츠 나눠주기라던가, 의과대학생들을 위한 강연들은 의료봉사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 같다.

나무만 보지 말고 큰 숲을 보라는 말처럼 “의료봉사”라는 단어 그 자체만을 생각했던 나는 다른 무엇으로도 봉사할 수 있음을 새삼 깨달았다.

다음으로 나는 안내도 맡게 되었는데, 그 덕에 모든 진료과를 돌아다니며 봉사단원들의 무한한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모든 봉사자들은 마치 늘상 호흡을 맞춰 온 듯 순조로웠고, 여러 번 방문한 곳 인양 환자들과도 자연스러웠다. 모두들 마지막까지 한명의 환자라도 더 봐주려고 노력했고, 덥지만 더운 내색없이 각자의 맡은 일을 이삼일 동안 묵묵히 해내주는 모습에 뿌듯했었다.

그렇게 모두의 열정으로 아무 탈 없이 나의 첫 해외 의료봉사는 끝났다.

밥 한그릇을 배 부르게 먹고 나서야 남의 밥그릇을 한번 돌아볼 것이 아니라, 밥 한그릇으로 모두 함께 도란도란 나눠 먹는 것 그런 것이 봉사인 것 같다.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치료나 처치를 받지 못한 현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지금의 일이 미래에 더 큰 보람이 될 꺼라 생각한다.

그래서 진짜 봉사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



이지형
전 경주시사회 간사

캄보디아에 심은 꿈의 씨앗



“어쨌든(감사합니다).” 2013년 여름, 캄보디아에서 경상북도의사회와 함께한 의료봉사는, 내게 봉사 그 이상의 의미가 되었다. 이전에 가족과 함께 말레이시아 의료봉사, 학교 친구들과 도미니카,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학교봉사를 몇 번 경험했었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봉사 떠나기 전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이번 봉사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또한 나의 미래를 설계 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

첫째 날, 설레는 마음을 안은 채 경상북도지사님의 축하와 격려 속에 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의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인천을 떠나 캄보디아로 향했다.

인천공항 출국을 위해 의료장비 및 의료물품을 단단히 포장하고 각 물품을 분실하지 않게 대원들이 책임지고 수송할 수 있도록 미리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해 오신 모습을 보고 놀라웠고 봉사대원으로 마음가짐이 새롭게 와 닿았다.

2년 전 여름, 학교 친구들과 함께 봉사를 갔던 나라이기에 캄보디아는 내게 특별한 의미와 추억이 담겨져 있었다. 공항에 도착하니 그때 봉사했던 초등학교의 아이들의 얼굴과 함께 신발이 없어 맨발로 다니던 아이들을 보며 가슴 아팠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도 지키고 싶었다.

후덥지근한 날씨도 캄보디아에 대한 나의 열정은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튿날 시작 된 본격적인 의료봉사에서 나는 아빠와 같은 치과에 배정되어 치위생사의 역할을 맡았다. 처음 해보는 석션과 레진, 소독일 이었지만, 치과치료 기회가 거의 없기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치과 밖 복도에 길게 줄지어 기다리는 환자들을 보며 더욱 그들을 위한 마음으로 즐겁게 배우고 매순간 열심히 임했다.

아침 10시에 시작해 5시 무렵 치료가 종료될 때 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잠시 앉아 있을 틈도 없이 바빴지만 발치, 충치치료, 충치예방 등의 꼭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있어서 뜻 깊었다. 이번에 경북의사회 임원분의 가족이 기증하신 유니터체어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고 모두들 참 고마워하였다.



문소현
문물러스치과의원(철곡)
문해석 원장 자녀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아빠(문해석 원장님)와 정기섭 원장님, 캄보디아 현지 치과 의사 선생님은 호흡을 맞추어 빠르고 효율적인 치료를 하였다. 하루에 100명을 넘게 치료하였다. 나는 치위생사 역할도 하고, 환자의 약을 챙겨 주는 등 여러모로 정신없이 바빴지만, 이 값진 일에 쓰일 수 있어 기뻐다.

치료 후에 두 손을 모으고 “어쭈”이라 감사의 표시를 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느끼는 보람을 어렵듯이 느끼게 되었다. 그런 아빠와 협력하여 한 팀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내게 행복 그 이상이었다.

이번 봉사가 내게 큰 의미가 된 것은, 내가 가슴 뛰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기술과는 반대 되게, 캄보디아에는 아직 제대로 된 의료 시설을 갖춘 병원이 거의 없다고 한다. 우리 의료봉사팀이 진료했던 병원의 의사들은 현대 기술을 사용한 의료기구를 거의 접해보지 못했거나 제대로 사용할 줄 몰랐다. 그분들은 신기해하며 자세히 묻고 한국 의료기술이 대단하다고 놀라셨다.

프놈펜을 떠나 씨엠립에 가서 특특이를 타다 어디선가 본 듯한 병원을 보게 되었다. 첼리스트이자 의사 선생님이 만든 Kantha Bopha 어린이 병원이었는데, 한국 TV에서 이 병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본적이 있다. 그 때 이 분과 비슷한 일을 해보면 얼마나 멋있을까 상상해 본적이 있었다. 이 병원은 가난한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무료진료소로 다른 사람들의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다. 그 날

토요일 7시 30분에 그 의사 선생님의 기부모금을 위한 첼로 연주회가 있었는데 비행기 시간으로 참석을 못해 내내 아쉬웠다. 캄보디아처럼 가난한 나라들에 저 어린이 병원과 비슷한 의료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경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단이 두 나라간의 사랑을 나누는 종합병원이 된 것처럼, 나중에 내가 의사가 되거나 병원시스템을 충분히 공부하였을 때, 우리나라 의사와 캄보디아인 의사가 더불어 일하는 병원을 만들고 싶다. 선진 의료기술과 시스템으로 아파도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값진 일에 내가 쓰임 받고 싶다.

짧았지만 며칠간의 봉사활동을 통한 나눔은 더 큰 행복으로 내게 다가왔다. 마지막 날에는 씨엠립 관광 대신에 우리 가족은 이전에 갔던 프레이초등학교를 다시 방문할 수 있었다. 자그마한 그 아이들의 맨 발에 예쁜 신발을 신겨 주었을 때 너무 기뻐다. 나를 아직도 기억해주는 아이와 선생님께 감사해서 더욱 반가운 시간들을 보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기술과 나누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었다.

앞으로 나의 공부의 목적이 ‘배워서 남 주는 공부’가 되기를 원하고, 이번 봉사로 알게 된 나눔의 기쁨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내 마음 속 소중한 나라인 캄보디아에 나의 꿈인 모든 이에게 선진 의료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꼭 만들고 싶다. 그리하여 내 꿈이 많은 캄보디아인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희망과 꿈을 만들어 나가길 소망해본다.

행복의 기준



막 도착한 프놈펜 거리는 차와 오토바이가 마음대로 영켜서 아슬하게 다니고 있었고 도로가 전봇대에 마구잡이로 영킨 시커먼 전깃줄들은 창밖으로 내다보는 우리를 놀라게 했다. 너무 위험해 보였다. 여기가 가난하고 힘든 나라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버스가 도착한 곳은 캄보디아 왕립병원이었고 현지 스텝들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미리 나와서 우리 일행을 웃으며 반겨 주었고 무거운 짐들을 이동시키는 것을 함께 하며 영어로 된 명찰을 보고 서로의 이름을 읽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봉사를 나온 의대생들은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이 되어서 반가웠다. 어느 나라든지 의대생들은 참 똑똑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번에 약국팀에 배정되었고 경주에서 오신 김영란 약사님을 도와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 약사님과 함께 약국실 방 테이블 배치를 하며 약들을 각각 제 위치에 진열하였고 우리들의 업무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느껴졌다. 첫날 우리 약국팀은 대구은행에서 후원한 예쁜 분홍색과 파란색 티셔츠를 환자에 맞게 사이즈별로 나누어서 약과 함께 나누어 주었다.

현지 환자들과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조그만 남자 아이가 선물로 받은 티셔츠를 꼭 안고 우리 얼굴을 바라보는데 서로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엄마가 입혀주니 너무 좋아하며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춤을 추는 바람에 우리 모두는 한바탕 크게 웃었다.

오후 시간이 되자 처방전을 들고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의 마음은 바빠졌다. 약국팀과 현지 의대생 자원봉사자들은 바쁠수록 눈빛을 보며 서로에게 집중하였고 손발이 척척 잘 맞았다.



문덕현
문플러스치과의원(칠곡)
문해석 원장 자녀

이번 캄보디아 의료봉사는 정말 즐겁고 뜻 깊은 시간들로 채워졌고 캄보디아가 불쑥 형제나라처럼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미리 약속된 처방전 번호에 따라 처방일 분량 만큼의 약을 준비해주었고 현지 의대생 봉사자들은 약을 먹는 방법 등을 환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둘째 날은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로 야의 대기공간이 아침부터 가득 차 있었다. 마침 현지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도와 주셔서 어디가 아픈지 자세히 묻고 이름과 아픈 곳을 한국어로 접수부에 적어 주셨고, 예진팀은 환자들이 진료 받을 과를 빨리 각각별로 나눌 수 있었다.

많은 환자들은 약을 받으면 두 손을 꼭 모으고 우리를 바라보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었는데 가슴이 뭉클했었다.

그리고 치과팀에서 준비한 칫솔과 치약을 우리 약국팀에서 선물로 나누어 드렸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셨다. 나는 몇 분들에게 올바르게 양치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고 이날은 너무 바쁘고 더워서 땀방울로 옷이 적셔진 것도 모든 진료가 다 마쳐 갈 때 쯤 알았다.

그런데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자 환자들이 갑자기 줄을 서지 않고 약품 진열대 앞으로 몰려와서 우리는 당황했다.

현지 봉사자에게 “모두에게 약을 다 드릴테니 안심하고

줄을 서달라고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더니 봉사자들이 큰소리로 외쳤고 약국 대기실은 다시 질서를 지킬 수 있었으며 방문했던 모든 분들에게 약을 드릴 수 있었다.

캄보디아가 더운 곳이라 피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았고 머리가 아프고 소화 장애를 가지신 분이 많았으며 의외로 더운 나라인데도 감기 환자들도 많았다.

몇 분들은 당뇨병과 결핵으로 몇 달치 약을 받아 가신 분들도 있었다.

그 분들은 약을 여러 봉지에 담아 가셨다. 약사님은 그 많은 약들을 다 만들어 주셨고 옆에서 지켜보며 그 책임감과 환자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서 감동이 되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란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부모님과 누나, 친절하신 의사 선생님들과 약사님, 유창한 한국어말로 통역해 주셨던 캄보디아 여자 선생님, 출발 때부터 모든 일정을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고 늘 다정하게 도와 주셨던 의사회 부장님, 몇 일동안 함께 동행하며 취재한다고 애쓰신 MBC 선생님들, 친구들과, 동생들과 함께 했던 이번 캄보디아 의료봉사는 정말 즐겁고 뜻 깊은 시간들로 채워졌고 캄보디아가 불쑥 형제나라처럼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만나면 더 기쁘고 반갑게 느껴질 것 같다.





여름방학 시작과 캄보디아 의료봉사



나는 이번 여름방학 시작할 쯤에 학원이나 친구들 속에서의 생활 대신에, 동남아에 있는 캄보디아로 가는 의료봉사 팀에 참가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해외의료봉사를 가는 봉사단에 참가한다는 설레는 마음보다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섰다. 왜냐하면 최근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 뎅기열이 유행하고 있다고 해서이다. 하지만 나의 이런 걱정과는 달리 비행기는 프놈펜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프놈펜에 공항을 나와서 현지시각 새벽 1시쯤 숙소에 도착하여 바로 잠이 들었다.

다음 날은 예정된 진료소인 캄보디아 왕립군외과학연구소에 가서 의료봉사를 했는데, 말이 의과대학이고 병원이지 별거 없었다. 나는 환자들의 체온, 몸무게, 혈압을 재서 기록하는 Vital Sign 체크를 맡았는데 별로 힘들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하고보니 많이 힘들었다. 기본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대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예진실(환자를 미리 문진하여 어느 과 진료를 볼지 정하는 진찰실)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 힘이 들었다. 하지만 첫날에는 환자가 많이 오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다음 날에는 환자 분들이 첫날보다 더 많이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했고, 더 더웠기 때문에 첫째 날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짜증이 나는 게 파리였다. 파리가 많아도 너무 많았다. 모기도 많았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곳 파리들은 굉장히 날쌔서 잡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햇빛이 우리나라와 달리 굉장히 강해서 한창 더운 1시쯤에는 바깥에서 1분만 있어도 살이 따갑고 땀이 날 정도로 더웠다.

봉사를 하면서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과 만났는데 대부분 비슷한 얼굴에 가난한 모습의 그 곳 캄보디아 사람들은 매우 불쌍해 보였다. 그리고 아이들은 마르고 작은 체구를 하고 있었으며 더러는 맨발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행복해 보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나라의 행복지수가 세계 3위라 한다. 내가 갔을 때 이곳은 마침 선거기간이어서 거리 곳곳에 선거벽보가 붙어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에는 후보자들이 선거유세를 하고 있었다. 더운 날씨와 파리, 모기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곳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의 봉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겨우 겨우 견뎠는데, 끝날 무렵 땀이 났다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봉사를 하는가 싶었다.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보람도 있었고 느낀 점도 많아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갈 것이라는 생각과 덥고 힘든 시간으로 이번 한번이면 되지 뭐 하는 생각이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재미도 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다.

끝으로 그냥 평범하게 보낼 여름방학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경북의사회 의료 봉사단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협
서울내과의원(경주)
이흥우 원장 자녀

힘들었던 일주일, 보람찼던 일주일, 그리고 기다려지는 의료봉사

7월 28일 일요일 07:30, 인천국제공항...

모든 봉사일정을 마치고 일주일전 캄보디아로 떠났던 대한민국에 다시 발을 내디뎠다. 이제서야 피곤이 밀려오고 정신이 몽롱한 것이 잠이 쏟아진다. 하지만 이번 의료봉사의 결과를 정리해야 하는 부담감도 남아 있지만 첫 해외의료봉사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것에 대한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어 본다.

1,000장이 넘는 사진과 2시간이 넘게 촬영된 영상물, 또 1,300여장 가까이 되는 진료기록부, 이번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진행을 위해 준비한 150여개가 넘는 문서파일, 그리고 내시경 장비를 포함한 100여개가 넘는 진료용 물품과 140여종의 의약품 등을 포장하여 가져갔던 63개의 박스 중 다시 한국으로 가져온 12개의 박스들, 이 모든 것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이다.

해외의료봉사를 떠나기 일주일전 최종 의료진 전체회의에서 의료봉사 활동 및 진료방향이 확정되면서 나도 내 육체와의, 그리고 정신력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물론 수개월 전부터 국내 여행사 담당자와 캄보디아 현지 여행사 강종우 부장과는 얼굴도 모른채 음성 통화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었으며, 행정적으로 차곡차곡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남은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회사 출근에 앞서 건너뛰기가 일쑤였던 아침밥과 체력보충을 위해 비타민까지 챙겨먹으면서 나름대로의 건강을 유지하고 출근복장은 운동화에 편한 옷을 입고 나선다. 5살이 된 딸이 이렇게 나서는 것을 보고 조금 이상했는지 “아빠는 오늘도 등산가?” 이러면 “영 아빠는 회사에 등산 하러 간단다.”며 농담 삼아 말하곤 했었다.

이번 캄보디아 의료봉사는 경험도 없었고 그 국가에 대한 무지함은 물론 봐도 봐도 도저히 알 수 없는 글자로 인해 진료문진표와 안내문 작성에도 엄청난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난다. 다행히 커소피 씨와 수차레의 교정지를 주고받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인쇄를 마치는 번거로움까지도 감수해야만 했다.

회사에 출근함과 동시에 매일 준비사항을 체크하면서 물품을 준비하기에 바빴다. 기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회무는 긴급을 요하는 것만 처리하곤 하루일과가 해외의료



권순길 부장
경상북도의회

봉사를 준비하는 일이 되어 버렸다. 한 사람의 손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였다.

진료물품과 의약품을 준비하고 포장하면서 공항에서 가장 눈에 잘 보이도록 노란색 박스로 준비하고 현지에서 가장 신속하게 옮겨질 수 있도록 각 진료과별, 지원파트 별로 필요물품을 준비하고 약품은 분류하기 쉽도록 미리 성분별로 나누어서 박스 포장작업을 하자며 사무직원간에도 회의에 회의를 거쳐 준비해 나간다. 한참 작업중에 물건이 뒤섞이거나 뒤늦게서야 여행사에서 이동하기 쉽도록 박스 중량을 30kg 이하로 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풀어서 일일이 저울에 달아 새로이 포장하기도 했다. 이젠 부업으로 포장 알바를 할 정도는 되어 간다며 농담삼아 얘기해 본다.

그리는 사이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다. “권 부장, 몸 관리 하면서 일해,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오는 그날까지 아프면 안된다.”며 몇 번씩이나 당부의 말씀을 전하신다. 나 자신 또한 그것이 가장 신경쓰인다. 현지에 가서 몸상태가 좋지 않으면 아무일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박스 포장작업은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던건만 시간이 갈수록 물량은 자꾸 늘어가고 진척이 없다. 야근에 또 야근, 토요일, 일요일이 없다. 곧 떠나야 하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했기에 직원 사이에도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정도로 알아서 출근하고 일을 재촉한다. 그렇게 시작된 물품준비와 포장작업은 떠나기 전날 늦은 밤이 되어 서야 박스에 번호와 물품내용을 적어 붙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근데 아뵘새 내가 가지고 가야할 개인 물품은 전혀 챙기질 못했다. 와이프에게 부리나케 전화하여 여름 옷과 속옷, 간단한 세면도구만 일단 챙겨달라고 전화를 하곤 의료봉사 물품을 최종 확인하고 마무리를 짓고서야 끝이 났다. 이번 의료봉사 물품은 웬만한 이삿짐 수준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힘들었던 일주일 이었다.

그렇게 경북도청에서 의료봉사의 출정식을 끝내고 인천 공항에 도착했다. 물품과 의약품은 화물차량으로 인천공항에 먼저 보냈기에 우리의 도착시간에 맞추어 물건을 받을 수 있었다. 사전에 의료봉사단원들에게 일일이 배정된

번호 대로 끝까지 챙겨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고 문제 될 것은 없었지만 캄보디아 현지사정이 워낙 좋지 않다고 하여 여전히 불안감은 떨치지 못했다.

출국수속을 밟고 물건을 모두 보냈는데 문제가 생겼다. 멸균방역을 위해 가져간 멸균수와 모기 해충제가 통관에 문제가 되었다. 통관직원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나서야 통관이 이뤄지고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이륙을 기다린다. 그런데 몸이 쭈시고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컨디션에 이상한 느낌이 오는 것이 감지가 된다. 웬지 불안하다. 도착하자마자 약을 복용해야 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폭 쉬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비행기 안에서 잠을 청해 보지만 쉽게 눈이 감기질 않는다. 그렇게 5시간을 한숨도 못자고 늦은 밤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다. 말대로 후덥지근한 날씨와 공산 국가라는 위압감이 나를 위축 들게 만든다. 혹시라도 질문이라도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손짓발짓으로 과연 통할까? 별의 별 생각이 다든다. 하지만 미리 입국한 조성범 부회장과 NGO단체와 현지 여행사의 강종부 부장께서 여러 가지의 도움으로 무사히 캄보디아 입국수속을 밟고 숙소인 그린팔레스호텔에 도착하여 우리가 가지고 온 물건박스 숫자를 확인하고 모두들 숙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현재까지는 안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 상태도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진 않다. 그렇게 호텔에 도착하여 조성범 부회장님, 사무처장님과 함께 다음날 있을 첫날 진료에 대해 사전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음날 알람을 맞춰놓고 잤음에도 불구하고 30분전에 미리 눈이 떠진다. 어제부터 통틀어 3시간의 수면시간이다. 여러 가지 긴장의 연속인지라 사람의 정신력이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 새삼 또 느껴진다.

호텔에서 진료장소로 가는 버스안, 진료장소에 도착하여 물품을 배분하고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무처장님과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아무 문제없이 진료가 전개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본다. 우왕좌왕 하면서도 차곡차곡 진료준비는 되어가고 준비해간 무전기 10대 속에서는 이쪽저쪽에서 목소리가 바쁘게 전달되어 날라오면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간 한국에서의 준비과정에서

좋은 분들과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함께한 첫 의료봉사,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나뉠대로의 노하우를 축적 하고 견해를 넓히는 좋은 기회였다.



▲ 의료봉사에 참여한 여학생들의 단체사진에 찍힌 나의 뒷모습



▲ 유일하게 찍힌 장면

사방으로 뛰면서 상처도 나고 힘들다며 투덜대기도 했던 것들이 각자 맡은바 역할에 충실히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봉사단원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부끄러워짐과 동시에 나 또한 자동적으로 더 빨리 움직여진다.

나의 역할은 행정과 사진촬영 담당을 맡았다. 진료장면, 강의장면, 접수, 환자들의 모습을 담는 것이 임무였다. 캄보디아 현지인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짧은 영어실력을 조합하여 손짓 발짓과 웃음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진행된 의료봉사는 일주일 내내 피곤함도 없이 진행되었다. 정신력과 의욕이 있었겠지만 봉사라는 참의미와 더불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타인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과 함께한 모든 분들의 그 열정을 보는 것이 내 삶속에서 가장 보람된 일주일이었다 생각된다.

귀국 후 가장 먼저 사진과 영상기록물을 정리해 가면서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활동을 다시금 기억에 옮겨본다. 경북도청에서의 출정식, 프놈펜 공항, 숙소, 의료봉사활동, 귀국시 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시금 보면서 봉사에 참여하셨던 의과·치과·한의과 원장님, 약사님, 간호사 선생님, 사모님을 포함한 가족들, 그리고 이번 의료봉사를 위해 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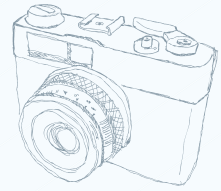
하신 모든 분들까지 지금도 내 머릿속에 한분 한분의 모습이 그려진다.

좋은 분들과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함께한 첫 의료봉사,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는 것 또한 작은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 하여 소소한 준비과정을 여기에 남긴다.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나뉠대로의 노하우를 축적 하고 견해를 넓히는 좋은 기회였다.



ps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사진과 영상물을 정리하다 보니 정작 제 모습은 없네요. 카메라를 들고 다녔기에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겠지요. 간간히 나의 옆모습과 다른분들의 사진에 찍힌 엑스트라로서의 역할을 빼곤... 하지만 저는 그 보다 더 많은 기록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출력을 하여 보관할 수는 없지만 저의 모습은 이번 캄보디아 해외의료 봉사를 함께 했던 63명 봉사단원 여러분들의 기억속에 항상 있음을 기대합니다. 맞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다시보는
제3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제3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브디이사회 2013년도 춘계주2한



춘계종합학술대회

1. 춘계학술대회 강의장 전경
2. 나득영 학술이사의 진행
3. 휴식시간을 겸한 홍보부스 관람



1



2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1. 친선의 밤 행사 전경
2. 참석하신 내빈과 함께 케익커팅
3. 영주 백현우 회원의 색소폰 연주
4. 포항 배호근 회원의 독창
5. 포항 우창호 회원의 가요 열창
6. 경주 김대인 회원의 자녀 김민석 군의 독창
7. 국악과 현대음악이 섞인 퓨전음악 공연
8. 포항시의사회 중창단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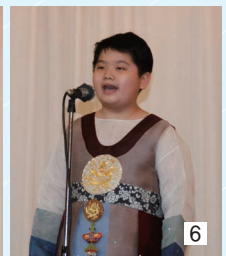
3



4



5



6



7



8

경북의학제

1. 경북의학제 개최식
2. 김천 제중석 회원의 선수선서
3. 정능수 회장, 김광만 의장, 변영우 의협회장의 인사



1



2



3





경북의학제

1. 탁구대회에 참석한 선수들과 함께 기념촬영
 2. 다함께 대동한마당 놀이



경북의학제

1. 테니스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함께 기념촬영
2. 삼행시 및 사행시 심사중인 심사위원
3. 그림그리기를 심사중인 이승수 교수
4.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와 함께 기념촬영
5. 삼행시 및 사행시 대상 수상자와 함께 기념촬영
6. 행운권 대상 시상
7. 우승을 차지한 서부지구에 우승기 전달
8. 의학제 행사를 마치고 단체촬영



1



2



3



4



5



6



7



8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입선작

[주제 : '여행'과 '내가 어른이 되면']



대상 | 강륜아
(김천, 우리들재활의학과의원 강산경 회원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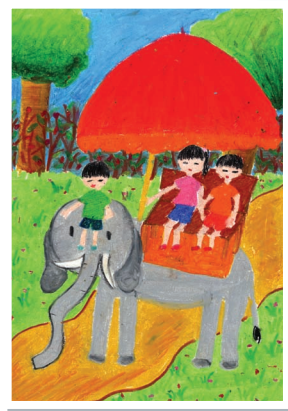
금상 | 박시은
(울진의료원 박인혜 회원 자녀)



은상 | 이승호
(경산, 소망의원 이성관 회원 자녀)



장려상 | 이예빈
(경주, 서울내과의원 이중현 회원 자녀)



장려상 | 강하영
(상주성모병원 강명진 회원 자녀)



장려상 | 이새영
(구미, 빛사랑안과의원 이성수 회원 자녀)



장려상 | 구민정
(포항세명기독교병원 구도현 회원 자녀)



장려상 | 최인영
(안동성소병원 최준혁 회원 자녀)

삼행시 및 사행시 입선작



지난 5월 26일(일)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열린 제3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삼행시 및 사행시에 「밀어내기, 이사금」의 시제로
총 70여 작품이 출품되어 입선된 작품이다.

장 원

밀어내기(이미숙, 영주 신영주내과의원 가족)

밀알되어 아픈영혼 싹틔우고 보듬으리
어제갈던 굳은다짐 세월속에 여러저도
내가내민 작은손길 누군가의 지팡이면
기뻐하리 작은밀알 흔적되어 남았음을

차 하

이사금(박훈민, 울진통증의원)

이~레 더븐데 뭐꼬!!
사람잡겠네 그것도 우승해서
금의환향 할끼다~^^

이사금(강혁주, 구미 강내과의원)

이세상에 태어나서 깜박했다 눈떠보니
사랑하는 내가족들 날붙들고 웃고있네
금생에서 만난인연 아름답게 이어보세

이사금(강명진, 경주 강남비뇨기과의원 자녀)

이향기로운 봄에 모두 다시 모였네요
사슴뿔담아 진료하시는 아빠들께
금메달보다 더 멋진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내세요 아빠!

차 상

밀어내기(정재호, 김천 한양정형외과의원)

밀가루를 밀가리라고 하구요
어머니를 어무이라고 하지요
내가족이 사는곳 경상도랍니다
기세당당 진짜사나이 경상도 머시마 최고

밀어내기(강혜림, 구미 강내과의원 가족)

밀가루로 조물조물
여기여차 반죽하자
내가만든 꿀떡으로
기가막힌 파티하자

참 방

이사금(장유석, 경산 장유석외과의원)

이웃사랑은 의료봉사로 부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경북의사회 인술
금방 실천할 수 있어요 지금 신청하세요
2013년 캄보디아 의료봉사단에!

이사금(김은단, 경주 민이비인후과의원 자녀)

이곳저곳에서 이사람 저사람
사알금 사알금 모이더니
금새 잔치판이 벌어졌네
매일이 오늘처럼 재미있으면 좋겠다

밀어내기(도은정, 경산 도은정소아청소년과의원)

밀림의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저 태양처럼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 희망을 주는 옛 선구자처럼
내일의 보다나은 국민건강을 위하여
기발을 올리고 전진하자,
청년의사들이여!



제3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성황리 개최

지난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경주코오롱호텔에서 열린 '제35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은 춘계종합학술대회와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 행사로 나뉘어 선·후배를 비롯한 동료와의 만남의 장을 만들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자리가 됐다.



2013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새로운 의학기술과 최신지견 습득을 위해 지난 5월 25일(토)부터 5월 26일(일)까지 경주 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회원 8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상진료에 도움이 되는 학술연제와 시청각 교육 등으로 구성된 2013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춘계종합학술대회 첫날 학술 강연은 나득영 학술이사 의사회로 시작되어 '임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혈관외과 질환'에 대해 허승 경북대의전원 교수 등 3편의 학술연제와 '2013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에 대해 김병국 경상북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강의와 더불어 특히 의료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신법률정보 등을 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인 성범죄자 취업 제한제도 대처 방안' 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임병석 법제이사의 강의로 큰 호응을 받았다.

둘째날에는 '다시 공부해야만 하는 폐결핵 치료'에 대해 최혜숙 동국의대 내과 교수 등 5편의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회원 8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상진료에 도움이 되는 학술연제와 시청각 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학술연제와 시청각 교육 1편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양일간 참석회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각각 6점씩이
주어졌다.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 개최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를 축하하는 자리로 만찬과
더불어 개최된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가 5월 25일
(토) 오후 5시 30분부터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문상용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그동안 갈고닦은 회원들의 장기
자랑과 다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행사를 마련하였다.

이날 친선의 밤 행사에는 김관용 경북지사와 김종서
대구시의사회장, 황의동 심평원대구지원장, 본회 고문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능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경상북도 모든 회원과 가족들의 축제의 날이다.

진료실에서의 긴장된 마음은 잠시나마 내려놓고 의사의 날
을 즐기자."며 "모처럼 만나는 동기들, 그리고 선후배님과
서로의 안부도 묻고 함께 오신 가족분들과도 마음껏 즐기
자."고 하였다.

또한 "의협이 얼마나 결속하고 있는지는 회비납부율이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에도 우리 경북의사회가 나서서 단단한 결속력을 더욱 더
단단하도록 붙들어 매자."며 의사회에 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전 회원 100% 회비 납부 운동을 전개
하고자 당부하였다.

최근 의료현안으로 의협 제65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결과와 더불어 2014년도 수가협상 진행 과정, 의원급 토요
가산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본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가 성공리에

춘계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

5월 25일(토)

session I (좌장 : 심재철 부회장)

- 2013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
- 김병국(경상북도 식품의약과장)
- 임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혈관외과 질환
- 허 승(경북대 의전원 혈관외과 교수)
- 프로포폴 등의 안전한 사용
- 조광범(계명대의대 소화기내과 교수)

session II (좌장 : 황석순 대의원회 부의장)

- 개원가에서 할 수 있는 만성콩팥병관리
- 박종원(영남의대 신장내과 교수)
-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신법률정보
- 임병석(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5월 26일(일)

session III (좌장 : 김재왕 부회장)

- 다시 공부해야만 하는 폐결핵 치료
- 최혜숙(동국의대 호흡기내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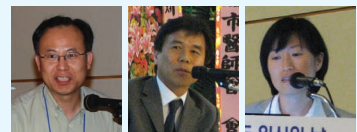
- 당뇨 그리고 눈
- 장우혁(영남의대 안과 교수)
 - 급연클리닉의 운영
- 김대현(계명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 session IV(좌장 : 김광인 대의원회 부의장)
- 의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두통의
진단과 치료
- 도진국(구가톨릭의대 신경과 교수)
 - 진료실에서 만나는 피부질환 완전정복
- 서무규(동국의대 피부과 교수)
 - 한국인의 10대 암
- 시청각(비디오)



심재철 좌장 김병국 과장 허승 교수



조광범 교수 황석순 좌장 박종원 교수



임병석 법제이사 김재왕 좌장 최혜숙 교수



장우혁 교수 김대현 교수 김광인 좌장 도진국 교수 서무규 교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회원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 참석한 내빈들과 함께 축하케익 컷팅으로 의사의 날 행사를 축하하였으며, 첫 번째 공연으로 영주 백현우 회원의 색소폰 연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다음은 포항시의사회 중창단의 공연, 세 번째로 경주 동인내과의원 김대인 원장의 자녀인 김민석 군의 독창, 포항 우창호 회원의 가요 열창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국악과 현대음악이 섞인 퓨전음악 공연으로 흥을 돋우는 자리를 마련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경북의학제 '서부지구'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경북의학제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체력증진을 위해 도내 4개 권역별 대항전으로 열리는 '경북의학제' 행사가 5월 26일(일) 오후 1시부터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경북의학제는 3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각 권역별 대표 선수로 참여하여 야외 정원에서 경기를 펼쳤으며, 금년도에는 명랑운동회와 탁구, 바둑, 족구, 윷놀이(남성·여성), 골프피칭과 화합한마당으로 참석한 모든 회원과 가족들이 대동놀이로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번외 경기로 테니스대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시조 및 3행시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총점 430점으로 서부지구가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종합우승을, 준우승에는 동

부지구, 3위 북부지구, 4위 남부지구가 차지하였다.

또한 회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3행시 및 사행시는 '이사금', '밀어내기'를 시제로 선정하여 70여편의 출품작 중에서 신영주내과의원의 이미숙 가족이 '밀어내기'를 주제로 작성하여 장원의 영광을 안았으며, △어린이 그림그리기 '여행'과 '내가 어른이 되면'을 주제로 50여편이 출품되어 대상에 강륜아 어린이(김천, 우리들재활의학과의원 강산경 회원의 자녀)가 대상을 차지하였다. △테니스대회에서는 서수환·정희준 선수조가 우승을, 김지홍·임영택 선수조가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특히 테니스대회의 활성화와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위해 경상북도의사회 테니스 동호회를 구성하고 고문에 김성연 회원(문경), 회장 김지홍 회원(포항), 부회장 김대연 회원(영천), 총무 이사 김성환 회원(포항), 경기이사 윤영목 회원(안동)을 선출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밖에 가전제품, 자전거, 선풍기 등의 많은 경품을 준비하여 진행된 행운권 추첨은 각 권역별로 골고루 돌아가도록 추첨방식을 변경하여 회원과 가족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행운권 대상에는 구미 탐정형외과의원의 최중근 회원이 차지하는 등 내년에는 더욱더 알찬 행사로 진행할 것을 기약하며 제35회 경상북도의사의 날의 모든 행사를 마쳤다.



참여와 나눔의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파트너십 구축 협약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 5개 보건단체(의사회 · 치과의사회 · 한의사회 · 간호사회 · 약사회)는 국제사회에서 경상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재난시 의료지원 및 구호활동과 평상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함께 펼치며, 건전한 기부문화 운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과 인도주의 활동의 동반자가 되어 이웃사랑과 국제 봉사활동을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사회공헌 파트너십 구축 협약식을 지난 8월 17일(토) 오후 6시, 노보텔 엠베서더 대구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상북도의사회 정능수 회장과 경상북도적십자사 신기욱 회장, 권오홍 치과의사회장, 이재덕 한의사 회장, 고순희 간호사회장, 약사회를 대신하여 김영란 약사가 참여하여 협약식에 서명하였으며, 김광만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 회 의장과 김상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경상북도지사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국제협력 및 국제봉사활동, 재난시 의료지원 및 구호활동, 취약계층 의료지원 및 봉사활동, 건전한 기부문화 운동 및 기타 인도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추진키로 하는 등 5개 항에 대해 공동서명함으로써 6개 기관 간에 파트너십을 이루어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할 것을 협약하였다.

이번 사회공헌 파트너십 구축 협약식과 아울러 지난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4박 6일간 개최한 경상북도의사회 감보디아 해외의료봉사의 해단식을 개최하고 금번 의료봉사활동의 결과 및 성과보고와 더불어 봉사단원들의 봉사 소감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봉사단원 전원에게 금번 의료봉사에 참가한 감사의 뜻으로 의료봉사 증서를 전달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경북북부교도소에 의료장비 기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경상북도의사회가 수용자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북 북부교도소에 의료장비를 기증했다.

본회는 지난 8월 28일(수) 경북북부제3교도소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있는 기증식에는 경북도의사회에서 정능수 의사회장을 비롯해 김재왕 부회장, 문상웅 총무이사와 안동시의사회 김석근 회장, 최유근 원장(안동, 최유근안과의원)이, 대구지방검찰청에서는 김후균 의성지청장과 권오영 범죄예방위원회 수석부회장, 정재홍 경북북부제3교도소장과 정만진 의료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증식에서는 정능수 회장이 개인적으로 이비인후과 진료세트 1기를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경상북도의사회는 안과 진단장비 1기를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기증했다. 또한 의성지청 범죄예방위원회에서는 불우수용자 안경제작을 위한 지원기금 100만원, 대구 고산동부교회에서는 안경테 50개(1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의료장비 기증은 작년 10월 24일 정능수 회장 등 경북의사회 임원들이 경북북부교도소를 참관할 당시 안과 및 이비인후과 진료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진된 것이다. 이번 기증으로 안과장비가 마련되면서 최유근 원장이 교도소 내 안과 진료를 맡기로 했다.

정능수 회장은 “오늘 안과와 이비인후과 의료장비 기증으로 경북북부교도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 경상북도의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경북 선포식 현장에서 건강상담



경 상 북 도 는 사회 전반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경북, 행복한 도민의 시대를 열기 위한 민관

협력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8일(화) 포항실내체육관에서 김관용 도지사, 송필각 도의회의장, 본회 정능수 회장, 이영우 도교육감, 김귀찬 경북지방경찰청장, 박승호 포항시장 등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재난관련 단체,

기업체, 군인, 학생 등 1,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안전 경북 선포식』 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도민들이 안전에 대한 염원의 글을 직접 작성한 희망메시지 남기기, 어린이 대표의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호소문 낭독, 안전경북 旗 수여, 희망메시지 플래시몹 등으로 진행 되었다.

한편 이날 안전경북 선포식 현장에서는 본회와 간호사회가 의료지원 부스를 설치하여 참석한 도민들에게 당뇨 및 혈압측정을 비롯하여 본회 김우석 정보이사(포항, 오거리 사랑요양병원장)가 건강상담을 진행하였다.

‘결혼이민여성 의료기관 채용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는 지난 6월 17일(월) 오전 11시, 도청 제1회의실에서 ‘결혼이민여성 의료기관 채용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본회 정능수 회장과 동국대경주병원, 경상북도김천의료원·안동의료원·포항의료원, 구미강동병원, 안동병원, 안동성소병원, 예천권병원, 세명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참여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북도는 결혼이민여성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올해는 10개 의료기관에서 13명을 채용하고 향후 지원 의료기관을 확대해 더욱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에서는 시·군 및 다문화센터와 연계, 대상자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는 등 병원 인력 채용 및 활용에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경북의대생 6·25참전 전몰학우 추념비 참배



본회 정능수 회장은 현충일을 맞아 지난 6월 5일(수) 오전 9시 경북대 의전원 교정에 있는 6·25

참전 전몰학우 추모식에 참배하고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 날 참배에는 정능수 본회 회장과 박성민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6.25참전 53춘추회 회원, 학생대표 등 이 참석하여 헌화 및 분양, 추도사 낭독의 순으로 이어졌다.

경북의대생 전몰학우 추념비는 6·25 전쟁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참전하여 전사한 10명을 기리기 위하여 53춘추회(경북의대 1953년 춘추졸업동기회)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 잊지 못할 학우들을 기리는 뜻을 모아 추모의 정을 새기 위하여 1980년 4월 23일 건립되었다.

의료기관 진료차트, X-Ray 필름 무료파쇄



- 보안문서 안전하게 현장처리 -
대구드림텍 ☎ 053-583-1252

2013년도 경상북도 부패방지협의회 회의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과 부패 없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협의를 위한 2013년도 경상북도 부패방지협의회

가 지난 6월 7일(금) 오전 11시, 경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부패방지협의회는 주낙영 행정부지사과 본회 정능수 회장 등 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반부패·청렴대책 추진계획 보고와 청렴 경북 실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본회 고문단 간담회 개최



지난 6월 18일(화) 오후 7시, 포항 우미향식당에서 본회 고문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고문단 간담회는 정능수 회

장과 김광만 의장을 비롯한 이병채·신은식·이원기·변영우·정만진·이석균 고문과 신명준 포항회장, 본회 임원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정능수 회장은 최근 의료현안으로 의협 총회의 결과와 면허 신고제 시행, 2014년도 수가협상 결과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 하였으며, “항상 회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고문님께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김광만 의장은 “오늘 포항에서 고문단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좋은 의견을 많이 내어 주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 이우석 의무이사로부터 본회 주요 회무보고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였으며, 정능수 회장은 해외의료봉사의 진행 과정을 보고하고 고문님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개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

제2회 골프대회 준비위원회 개최



지난 2013년 7월 17일(수) 오후 7시 30분, 본회 사무처에서 ‘제2회 경상북도의사회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기금마련을 위한 회원친선 골프대회’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골프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오는 9월 8일(일) 12시, 포항 송라제니스C.C.에서 회원 40조(160명)로 구성된 골프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각지역별로 조편성에 따른 인원을 배정하였으며, 개인전은 신페리오방식(샷건방식 스타트)과 단체전은 시군별 대표선수 4명씩 출전하여 상위 3명 점수 합계로 종합시상을 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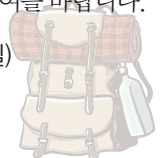
또한 다양한 시상으로 많은 회원들의 참가를 요청하였으며, 시군의사회를 통해 신청키로 하였다.

참가비는 1인당 2만원씩 받기로 하고 그린피·카트비·캐디피는 개별부담키로 하였다. 아울러 봉사기금은 자동이체 신청으로 1계좌당 1만원, 10계좌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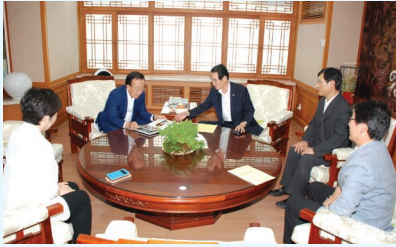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개최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를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행사일시 : 2013년 10월 13일(일)
10:00 ~ 15:00
2. 산행장소 : 영천 은해사 일원



해외의료봉사 결과보고를 위한 김관용 도지사 등 방문



본회 정능수 회장과 장유석 의료봉사단장(본회 부회장)는 지난 8월 12일(월) 오후 4시,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와 경상북도의회 송필각 의장, 경북지방경찰청

김귀찬 청장을 방문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진행한 해외의료봉사에 대한 성과와 결과를 보고하고 앞으로 의료봉사단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하였다.

‘제6회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참석



경상북도(지사 김관용)와 경상북도간호사회(회장 고순희)가 공동주최한 ‘제6회 건강한 모유수유 선발대회’가 지난 8월 27일(화) 오후 1시 경주 현대호텔 컨벤션홀

에서 개최됐다. 이번대회는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대회로 경북 도내 100명의 모유수유아와 가족 및 관련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가했다.

우수 아기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 아동간호학 교수, 모성간호학 교수, 모유수유전문가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모유수유로 자란 생후 4-6개월의 아기들의 건강상태, 신체계측, 모유수유 실천 정도, 모유 지식 등 8가지 영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선발했으며, 심사를 통해 으뜸상(70만원)과 버금상(50만원) 등 장학증서 및 상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행사당일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장에서는 영유아 상담 코너, 포토 존 운영, 모자보건관련 홍보부스 운영, 참가자 단체 및 개월별 기념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펼쳐졌다.

경상북도 시민단체와 재능나눔 봉사활동



경상북도와 본회를 비롯한 도내 33개 시민·사회단체 자원 봉사단 330여명은 지난 7월 12일(금) 오지 마을인 청송군 안덕면 문거리에서 ‘찾아라! 경북 행복 마을’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찾아라! 경북 행복마을’은 도내 오지마을을 선정,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오지마을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서비스 제공 등 재능나눔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23일 청도군 풍각면 화산리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이다. 이번 재능나눔 자원봉사활동은 농사일로 바빠, 거동이 불편해서 읍내에 가기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이·미용 봉사, 건강상담 및 돋보기 지원 등 생활서비스 제공과 노후 주택에 대한 도배, 방충망 교체, 전기배선 정비 등 총18개 분야에 걸쳐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 맞춤형으로 시민 단체의 기능과 기술을 나누는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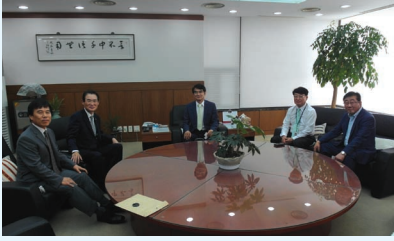
본회와 간호사회, 약사회는 현장에서 혈압 및 당뇨 측정을 비롯한 건강상담으로 지역민들의 건강을 직접 챙기는 등 다각도로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회원명부 발간용 사진 제출]

회원 상호간의 일체감 형성과 교류증진을 위하여 전체 의사회원의 사진 및 인적사항이 수록된 회원명부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이에 회원명부에 등재될 신규 사진을 수집하오니 회원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명부용 사진 : 최근에 촬영한 증명사진이나 이미지 사진
- 사진제출 : 2013년 9월 말까지
- 주 소 : 우)702-82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82(대현동)
- 이메일 : igbma@daum.net

안동MBC와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논의



지난 7월 10일 (수) 11시 30분, 본회 정능수 회장은 안동MBC 김상철 사장을 방문하여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의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안동MBC 김상철 사장을 비롯한 황계천 국장(MBC 사장 특보), 서규식 국장(MBC 세계유교문화재단 집행위원장), 조현상 편성제작 부장이 함께하였으며, 본회에서는 정능수 회장과 김재왕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KBS대구방송총국과 간담회 개최

본회는 지난 6월 7일(금) 오후 7시 30분, KBS대구방송총국과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서는 의료현안과 관련하여 논의하였으며, 특히 '희망 2013, 함께 사는 세상 프로그램' 사업과 본회 해외의료봉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날 본회에서는 정능수 회장, 장유석·황정환·조성범 부회장, 문상웅 총무이사, 김종영 공보이사가 KBS대구방송총국에서는 박영문 총국장, 김진봉 편성제작국장, 주경애 보도국장, 박병섭 기술국장, 장재두 시청자서비스국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개원을 축하합니다 (2013년 5월 ~ 7월)

포항시

나 규 현 _ 이동튼튼정형외과의원
(791-825)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138
대잠메디컬빌딩5층
T. (054)276-6600 / F.276-6600

최 기 영 _ 죽도삼성의원
(791-842) 포항시 북구 중앙로 242
T. (054)242-7582 / F.242-7581

이 중 호 _ 흥해경대안과의원
(791-947)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57
제일빌딩4층
T. (054)262-5817 / F.261-5818

이 상 봉 _ 정다운요양병원
(791-842) 포항시 북구 중앙로 208
T. (054)276-5115 / F.276-5125

김 우 석 _ 오거리사랑요양병원
(791-841) 포항시 북구 죽도동 48-23
T. (054)614-1009 / F.278-7521

경주시

조 성 현 _ 신경주병원
(780-905)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593-9
T. (054)624-2000 / F.624-2085

안동시

이 상 훈 _ 우리여성병원
(760-310) 안동시 옥동 994-8 3층
T. (054)850-3579 / F.843-3577

구미시

김 종 철 _ 강남의원
(730-320) 구미시 인의동 1005-9 3층
T. (054)462-2462 / F.475-8975

박 연 희 _ 한마음내과의원
(730-050) 구미시 선기로1길 15
T. (054)604-7799 / F.604-8899

한 윤 수 _ 평안의원
(730-320) 구미시 인동중앙로 50
T. (054)472-2302 / F.472-2306

김 윤 권 _ 남강성모요양병원
(730-141) 구미시 금오대로 378
T. (054)716-1800 / F.716-1804

신 진 식 _ 구미기톨릭요양병원
(730-909) 구미시 아은로 483
T. (054)455-8883 / F.454-3377

김 성 룰 _ 효장수요양병원
(730-912) 구미시 송정동 27-8
T. (054)458-5577 / F.458-5511

경산시

최 용 훈 _ 자인한결의원
(712-853) 경산시 자인면 설총로 887 1층
T. (054)853-0653 / F.857-0653

경북강남요양병원
(712-841) 경산시 와촌면 불굴사길 161
T. (054)851-9111 / F.851-9333

문경시

김 치 문 _ 마성의원
(745-862)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 823-3
T. (054)571-0003 / F.571-0057

영주시

이 승 규 _ 강남비뇨기과의원
(760-907) 영주시 구성로350번길 23 2층
T. (054)634-6611 / F.634-6612

영주명품요양병원

(750-902) 영주시 반지미로 265(가흥동)
T. (054)639-1800 / F.639-1888

상주시

연세병원
T. (054)536-5588 / F.534-1622
(742-952) 상주시 낙동면 영남제일로 841

성주군

이 명 갑 _ 튼튼연합의원
(719-802) 성주군 성주읍 시장길 6
T. (054)933-7582 / F.933-7586

성일요양병원

(719-803)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81
T. (054)933-5800 / F.933-9656

봉화군

이 기 태 _ 봉화우리들연합의원
(755-806)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47-13 2층
T. (054)673-0019 / F.672-8275

의성군

한 윤 수 _ 서울한결의원
(766-815) 영덕군 영해면 예주시장길 43-1 2층
T. (054)734-7778 / F.734-7727

울진군

지 청 현 _ 울진지청현의원
(767-801) 울진군 울진읍 연호로 8
T. (054)783-8668 / F.783-8669

예천군

경희요양병원
(757-802)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08-27
T. (054)655-6688 / F.655-6689

이동석 교수,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신임 병원장 취임**



동국대학교경주병원장에 소아청소년과 이동석 교수가 지난 8월 20일자로 새로이 임명됐다. 신임 이동석 병원장은 경북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취득했으며, 소아심장학 및 소아내분비학이 전문이다.

현재 대한심장학회 정회원, 대한소아과학회 정회원, 대한소아심장학회 정회원, 대한내분비학회 정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이사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 의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피부과 서무규 교수, **대한의진균학회 이사장 취임**



동국대학교경주병원 피부과 서무규 교수가 최근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0차 대한의진균학회 학술대회'에서 대한의진균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한편, 대한의진균학회지에 Kerion celsi caused by Trichophyton verrucosum probably transmitted from cattle이

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해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비뇨기과 이경섭 교수, **전립선암 종양 표지자 교과서 발간**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비뇨기과 이경섭 교수는 전립선암 종양 표지자라는 교과서를 발간하였다. 비뇨기과에서 큰 관심사로 떠오른 전립선질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전립선암 종양 표지자에 대한 내용을 총망라한 전문 서적으로 기초적인 내용부터 전문적인 내용까지 총 330

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을 포함시켰다. 군자출판사에서 발행하였으며 박정세 원장(박정세비뇨기과의원)과 공동으로 집필하였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사공정규 교수, **문예지 '문장' 작가상 수상**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사공정규 교수가 종합 문예지 '문장' 작가상을 수상했다.

사공정규 교수는 '행복을 넘어주는 사랑'이라는 수필집을 출간한바 있으며 경북매일신문의 '사공정규교수의 세상 이야기'등 6개의 신문

에서 고정 칼럼리스트로 활동했으며 이번 수상은 그동안의 작가로서의 작품 활동을 인정받아 최고 영예인 작가상을 수상한 것이다.

경상북도의사회 장재혁, 기획이사 임명



본회는 원활한 회무운영과 더불어 지난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임원증원을 의결한데 대해 기획이사에 장재혁 회원을 지난 6월 12일(수) 임명했다.

신임 장재혁 기획이사는 제일정형외과의원(경산)을 개원하고 있으며, 현재 경산시의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본회 정책이사로 활동하였으며, 금번 기획이사로 임명하여 의사회 회무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경상북도의사회 김영태 공보이사 임명



본회는 지난 8월 14일(수) 제17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본회 공보이사에 김영태 회원을 새로이 임명하였다.

신임 김영태 공보이사는 성모연합내과의원(경산)을 개원하고 있으며, 현재 경산시의사회와 대구경북개원내과의사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다.

-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



본회 회무 및 지역의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요소식을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경북의사회보'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요청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 재 : 제한없음(시, 수필, 의학 및 건강칼럼 등)
- 원고매수 : A4용지 2장 내외(글자크기 12포인트 기준)
- 보내실 곳 : 홈페이지(www.igbma.or.kr)의 회원마당
→ 회보투고란에 게재(상시제출가능)
- 기타사항 :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의사회보 편집방침에 따라 취지에 맞도록 약간의 원고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파기 안내

(진료정보의 보유기간)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명시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력, 가족력 등 진료정보는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기간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명시한 기간은 최소 보존기간이므로 연장이 가능
 - 단, 진료기록부상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최종 진료일로부터 의료법상 보존기간동안 보유하여야하므로 동일 진료기록부에 포함된 진료이력도 개인정보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음

-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의료법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하며,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 보유기간을 연장했을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보유기간동안 의료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진료기록부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병력, 가족력 등 신상정보와 치료내용, 소견 등 진료이력이 함께 포함되며, 신상정보는 최종 진료일로부터 최소한 의료법상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진료기록부의 개인 신상정보의 최소 보유기간은 최종 진료일로부터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인 10년 동안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의 보존기간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 5년

(진료정보의 파기 방법) 파기시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전자적 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고, 종이 등 기록매체는 파쇄 또는 소각

- 공공기관인 의료기관은 반드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보유기간 연장이나 폐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 진료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되지 않도록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진료기록은 복구되지 않는 방법으로 매체에서 삭제합니다.

(진료정보가 아닌 개인정보의 파기) 진료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처리목적의 달성 등 사유 발생시 즉시 파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시 복구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파기에 관한 기록을 남겨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시 산정한 보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회원탈퇴 등으로 개인정보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 특히,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같이 홍보 및 서비스 목적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주의
-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복구되지 않는 삭제, 파쇄, 소각 등의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경상북도의사회 문서파쇄사업

- 파쇄차량 현장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파쇄 처리 원칙(개인정보 등 보안문서 파쇄사업)
- 의료기관에서는 본회 회원임을 밝히고 대구드림텍에 의뢰할 경우 무료로 파쇄 처리

대구드림텍 대구광역시 설립(2011. 10. 26), 아시아복지재단 운영(장애인근로사업장), 근로자 51명, 수익 및 생활지원 사업 등 전개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68길 42 · 전화 : 053-583-1252 · 팩스 : 053-583-1253

:: 개인정보 수집 안내

(진료정보의 수집·이용) 진료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서 법률상 규정에 의해 수집하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이용할 수 있음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에 기재할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진료기록부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가. 진료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病歷) 및 가족력(家族歷)

나.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 및 예견 다.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라. 진료 일시분(日時分)

- 이와 같이 의료기관이 의료법령에 따라 진료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 할 수 있습니다.

(진료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진료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홍보나 홈페이지 회원관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단, 직원의 채용 등 인사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내부 직원의 필수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4호(계약의 체결과 이행)의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 의료기관이 홍보나 홈페이지 관리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의료기관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정보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련된 필수정보에 한하여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료정보의 이용) 진료정보는 진료목적에만 이용하여야 하며 진료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의료법에 따라 진료목적으로 수집한 진료정보를 병원홍보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진료목적의 범위

- 진료와 직접 관련된 **예약, 진단, 검사, 치료, 수납** 등 업무
- 예약확인 문자발송, 검사결과 통보 등의 업무
- 예방접종 안내는 진료와 연결되는 경우 진료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접종 안내는 진료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예 : 간접차 접종자에게 2차접종 안내는 연결되는 진료이나 독감접종 안내는 직접적인 진료목적으로 볼 수 없음)
- 병원 이전이나 휴업에 관한 정보는 진료예약, 검사 등과 연결되므로 가능



[Q & A] 이럴 땐 어떻게???

Q 모든 병원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꼭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병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 따라 동의서 징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법률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 및 제4호(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해당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서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이외의 사항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연락처의 경우 처방전 오류 등 위급한 상황 시 연락이나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진료예약시간, 검사결과 통보 등)에 한하여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합니다.

만약 병원소식, 건강정보, 백신접종 홍보 등 정보주체의 직접적인 진료와 관계없는 내용을 문자, 우편 등으로 보내고자 한다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병원에서 환자에게 SMS나 우편 등을 통해 진료목적 외로 개인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처리하신다면, 동의를 징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를 받을 경우 최초 방문 시에만 받으면 됩니다만, 이후 이용 목적이 추가되거나 제3자 제공 등 처리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A라는 지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다른 지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정보를 공유 받아 수집·이용할 수 있나요?

A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일률적으로 타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등을 공유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A라는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진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홈페이지 상담코너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원할 경우,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A 홈페이지에서의 진료상담은 의료법상 진료행위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정보(병력 등)와 같은 민감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진료실 앞 모니터에 대기자 명단을 게시하고 있는데, 이 때 환자의 이름을 전체 다 표시해도 되는지?

A 성명 전체 표기는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이름을 모두 표기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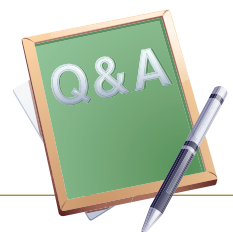
다만 민감한 진료과에서는 '홍*동처럼 이름 중 일부를 *표 처리하는 등 성명 전체가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SMS, DM등 병원 원내, 홍보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라고 한 줄로 압축해서 동의 받아도 되는지?

A 아닙니다. 문의하신 방법은 법률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분회 및 병원소식

포항시의사회

제7회 포항시의사회 골프대회 개최



포항시의사회(회장 신명준)는 지난 6월 2일 오전 7시 포항 오션힐스C.C.에서 포항시의사회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골프대회는 맑고 쾌청한 날씨 속에 본회 정능수 회장과 김광만 의장, 한형원 부회장, 황석순 대의원회 부의장의 시타로 시작되어 회원 40명(10조)이 3코스로 나누어 성황리에 열렸다.

경주시의사회

제10회 경주시의사회 골프대회 개최



경주시의사회(회장 조성범)는 매년 개원가와 대학병원 간의 회원 친목도모와 건강을 위한 회원 친선골프대회가 지난 8월 25일(일) 오전 6시, 경주 신라C.C.에서 36명(9조)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골프대회에는 11개 부문의 시상과 행운권 추첨이 있었으며, 우승에는 오두환 회원(큰마디병원 정형외과)이 차지하였다.

안동시의사회

제7회 안동시의사회 골프대회 개최



안동시의사회(회장 김석곤)는 지난 6월 2일 오후 1시 군위 꽃담C.C.에서 안동시의사회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본회 정능수 회장과 김석곤 안동시의사회장을 비롯한 회원 30명(8조)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우승은 백상현 회원, 메달리스트 장명근 회원, 준우승 심강수 회원, 롱기스트 서의태 회원, 니어리스트 심상준 회원이 차지하였다.

구미시의사회

제19회 구미시의사회 골프대회 개최



구미시의사회(회장 김학근)는 지난 6월 16일(일) 선산C.C.에서 구미시의사회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 11팀(42명)이 참가하여 우승은 김승기 회원, 메달리스트 김주헌 회원, 준우승 민명기 회원, 3위 신진식 회원이 차지하였으며, 10년 연속참가 회원인 박재호·김옥배·장의현·김동욱 회원에게는 공로상, 정능수 도의사회장은 특별상, 스타일리스트상 박

우순 회원, 매너성에는 김병국 회원이 차지하였다.

경산시의사회

참전용사 부대초청 행사 의료봉사 전개



경산시의사회(회장 김종영)는 지난 6월 19일(수)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참전용사 부대초청 행사로 경산시의사회 의료봉사를 전개하였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김종영 회장과 김영태 공보이사, 박종완 의무이사를 비롯한 간호사들이 참석하여 환자를 돌봤다.

경산시의사회 문화행사 개최



지난 7월 16일 CGV에서 경산시의사회 회원 및 가족, 보건소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문화행사로 '워드워즈' 영화를 관람하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 오거리사랑요양병원

포항열린학교와 협약식 체결 및 2천만원 기부



포항 오거리사랑요양병원(병원장 김우석)과 포항열린학교(교장 임종우)가 지난 5월 24일(금) 오거리 사랑요양병원 3층 강당에서 '학교와 병원의 행복한 동행' 교육기부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거리사랑요양병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장학금 2천만원 등을 전달하는 등 사랑의 뜻을 펼쳤다.

포항세명기독병원

새 본관 준공식



포항세명기독병원(이사장 한동선)은 지난 8월 24일 오전 11시 30분, 10층 대강당에서 최근 건립이 완료된 새 본관 준공기념식을 개최했다.

새로 건립된 본관은 총 공사비 300억원을 투입, 지상 10층, 병상 200실, 연면적 1만 515㎡ 규모로 건축됐으며, 병원 총 연면적이 3만6천939㎡로 늘어났고, 가동 병상규모 또한 400병상에서 600병상으로 늘어나 포항 최대규모의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신축 본관에는 1층에 응급의료센터와 원무팀, 2층 외래진료실과 척추신경센터, 3층 건강증진센터와 내시경센터, 4층 심혈관계 집중치료실과 병실, 5~8층 병실, 9층 직원식당, 10층 대강당이 자리하게 됐다.

세명기독병원은 본관 신축과 함께 첨단장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함께 진행했다. 대표적인 첨단장비인 일본 도시바사의 160채널 MSCT(Multi-slice CT)를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도입했다. 그 외에도 최신 MRI 1대를

추가 도입해 총 3대의 MRI를 보유하게 됐으며 최첨단 미세수술현미경 1대와 원격심전도 시스템 장비, 인공신장실 동정맥류 혈류량 측정기 등도 추가로 도입했다.

세명기독병원은 지난 2002년 병원을 센터 중심의 전문 특성과 병원으로 전환한 이후, 우수한 의료진 영입과 첨단 장비에 집중 투자해 대도시 대형 병원에 못지않은 특성화 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 준공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국제 힐링센터가 지난 6월 3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련 동국대학교 이사장, 김희옥 동국대학교 총장, 주낙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및 기관 단체장, 지역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동국대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는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인적 치유를 추구하며, 센터 내에 마인드바디힐링센터·양한방통합의학센터·에스텍힐링센터·필라테스힐링센터·헬스프로모션센터를 개설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기증원, 뇌사자 장기증 업무 협약

동국대경주병원과 한국장기증원(이사장 하중원)은 지난 7월 4일 뇌사 장기증자 관리업무와 관련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 구득 활성화를 위한 뇌사 추정자 발굴과 관리, 장기 구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장기이식 의료분야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베트남 롱바마을서 의료봉사, 의약품·구호품 세트도 기증



지난 7월 15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타이응우안성 롱바마을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21세기 새마을운동 국제화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은 외과 정기훈 교수를 단장으로 12명의 의료진이 참가해 현지 주민 약 1천200명을 진료했다. 봉사단은 열악한 현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 많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그늘막을 펼쳤으며, 현지 주민들의 개인위생을 위해 수건, 세면도구 등의 구호품 약 1천200세트를 준비해 일일이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또한 인근 초등학교에는 크레파스를 전달하고 유관기관에는 의약품을 기증하기도 했다.

안동병원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출범



경상북도와 안동병원(병원장 김효윤)은 지난 7월 4일 안동병원 헬기계류장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범식을 가졌다.

경북지역 응급의료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은 닥터헬기 브리핑, 안전운항 출범 퍼포먼스, 닥터헬기 환자이송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닥터헬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구조사, 간호사가 탑승해 경북권역에서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0~20분 이내 현장에 도착, 사고현장에서 치료하면서 의료기관까지 신속히 이송하는 임무를 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안동병원을 중심으로 울릉도를 제외한 경북 전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미국유로콥터 EC-135 기종인 헬기에는 인공호흡기, 심장 제세동기, 이동형 초음파기, 환자감시 모니터 등 응급장비 40여종과 강심제 등 응급의약품 20여종이 탑재되며 기장, 부기장, 응급전문의, 구조사, 간호사와 환자 2명이 탑승할 수 있다.

경북도 38개 응급의료기관 '생명지킴이' 협약



경상북도 응급의료기관 생명지킴이 업무협약식이 지난 6월 20일 안동병원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생명지킴이 협약은 도내 응급의료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후유장애를 없애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식은 경상북도 주낙영 행정부지사와 닥터헬기 운영의료기관인 안동병원 강보영 이사장, 이기중 포항세명기독병원 응급의료 센터장을 비롯한 38개 응급의료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닥터헬기운항 현황보고, 경북도민 생명지킴이 양해각서 체결, 닥터헬기 훈련참관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동성소병원

심장·뇌혈관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안동성소병원(병원장 권영대)은 지난 7월 29일 심장·뇌혈관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안동지역 병·의원 의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창영 계명대 의대 교수와 유승기 을지대 의대 교수가 각각 '두개내 스텐트'와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에서의 산화적, 염증성 스트레스'란 주제 강연이 열렸다. 또 센터 개소 이후 1년 동안 지역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은 심장, 뇌, 말초혈관 시술사례에 대해 이은규 심장·뇌혈관센터장 외 5명의 전문의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외국인 홍보대사 위촉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병원장 박래경)은 지난 7월 25일(목) 최근 중국, 몽골,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등 8개국 외국인 12명을 병원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베트남 출신 트란티투항(이주여성), 중국 출신 왕미희(금오복지관 마을카페 매니저), 필리핀 출신 리디아비구이드(카톨릭문화센터 영어강사), 몽골 출신 몽흐벌드(제일외국인상담센터 선교사), 캄보디아 출신 포브스페악(꿈을 이루는 사람들 상담원),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라리사(영어강사) 등으로 이미 지역에서 외국인 지원과 관련해 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 여성 및 외국인이다. 위촉된 외국인 홍보 대사들은 외국인 진료 안내와 의료진 연계는 물론 환자와 의료진의 통역 역할을 수행한다.

찾아가는 '농촌현장 이동 종합병원' 마련



지난 6월 1일 농촌진흥청, 진안군, 전북 농

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진안군 안천면 노재마을에서 질병 진단 및 치료를 돕는 새로운 개념의 '찾아가는 이동식 종합병원'을 마련했다. 이날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외과 전문의인 박래경 병원장도 직접 참여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폈다. 각 질환별 전문의와 간호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30여명의 의료지원팀은 호흡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척추질환 등의 진료와 혈액·소변검사, 흉부 X-ray, 초음파, 골밀도 검사 후 의약품 제공과 더불어 농업인 건강예방 교육도 실시했다.

이 사업은 2010년 농촌진흥청과 순천향대학교가 농촌 발전을 위해 손을 잡은 것과 관련, 순천향대학교 산하 부속병원은 매해 의료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농어촌 지역을 방문해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호남산부인과 학회

제23차 영호남 산부인과 학회 학술대회 개최



영호남산부인과학회(회장 전상식)는 지난 6월 14일 경북대의전원 산부인과교실 주관으로 대구인터볼고호텔 1층 카멜리아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 특별강연으로는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김문기 소장으로부터 '퇴계 선생의 삶과 학문'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심포지움으로 경상대 최원준 교수의 '스테로이드 과민증'외 5편의 강연이 있었으며, 매년 영남과 호남의 대학병원 산부인과교실 주관으로 열리는 학술대회로서 영호남의 화합의 한 마당으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튿날인 6월 15일에는 대구CC에서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우승에 양희생(동국의대) 회원, 준우승에 최상준(조선의대) 회원, 메달리스트 김두표(안동병원) 회원, 장타상 박윤기(영남의대) 회원, 근접상 최욱환(부산의대)이 차지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입증의 대상 : 인과관계



의료과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으로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의사의 진료 행위에 있어서의 과실 및 그 과실과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이다. 즉 인과관계와 과실의 문제는 의료과오소송과 관련된 이론적 논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에서와 달리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경감에 대한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과관계의 의미

보통 인과관계라 함은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원인 결과관계(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가해행위와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중 어느 범위까지를 가해자에게 배상시킬 것인지를 법적으로 평가하여 귀책의 문제로 삼는 것(법적 인과관계)을 말한다. 그러나 의료과오소송의 경우에는 의료행위가 극히 고도의 특수전문 영역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의학이 발달한 현재에도 의학상 불명한 점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또한 환자 개인의 특이체질 문제가 있어 통상인이 갖는 경험칙만으로는 의사의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생긴 결과와의 사이에 사실적 인과관계가 판단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의료과오소송에서도 다른 특수한 불법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사 등의 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그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요구 할 수 있다. 우선 가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성립되면, 그 다음에는 어느 범위까지 손해를 배상케 할 것인가 하는 법적 가치판단을 하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법적 인과관계는 어디까지나 사실적 인과 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와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와의 사실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만 하는데 이 입증의 용이하지 않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임좌혁 병원장
경산중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법학박사)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론은 의학적인 메카니즘을 해명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간접 사실 및 경험칙의 활용에 의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인과관계를 역학적 인과관계라 한다. 역학에서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먼저 어떤 질병이 일어나는 원인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몇 개의 인자를 추출하여 그 질병의 발생과의 관계를 조사하고 다시 상관성이 높은 인자를 선택한 후에 그 인자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간다.

2.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존부판단의 기준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문제는 원인행위와 결과 사이에 자연적·사실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직접증거에 의하여 바로 증명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경우 경험칙을 준거로 하여 간접사실이 가지는 증명력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추인시키는, 사실상의 추정방법에 의하여 그 존부가 판단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실이 어느 정도로 입증될 때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인과관계는 원인행위와 결과사이의 관련을 묻는 것이고, 과실은 그 원인행위에 대한 법적평가, 즉, 원인행위는 과실의 사실적 측면이므로 인과관계와 과실을 떼어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과관계와 과실은 서로 상관성을 갖는 관계라 볼 수 있다.

의료과오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제요소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① 원인으로 되는 의료행위상의 의학원칙 위반, ② 당해 의료행위와 장애결과와의 시간적 접촉성, ③ 다른 원인의 개입성 부정, ④ 일반적, 통계적 인과관계 등을 인과관계 존부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3. 의료과오소송에서의 인과관계의 입증 및 그의 완화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고 곤란한 문제가 어떠한 사실이 어느 정도까지 증명되었을 때 인과관계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존부는 일반생활상의 사회현상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의학 및 아직 해명되지 않은 생체의 반응과 이에 대한 의료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인정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전문분야의 지식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과오는 고도로 발전된 과학적인 분야에서의 사고이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서도 의사측으로부터 과학논쟁이 제기되는 것이 오히려 보통으로 되어 있지만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목적은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분쟁을 공평하게 해결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역사적 증명으로 족하다 하겠다.

입증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의학지식에 있어 의사와 환자사이에는 격차가 있고 증거자료의 거의 모두를 의사측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소송에 있어 환자측이 의사의 과실 및 그 결과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환자측의 입증부담을 경감하여 준다는 취지에서 수술방법 선택의 위험성 내지 불합리성을 상당한 정도로 추정케 하는 자료가 제출되면 의사측에게 이에 대한 반증을 하게하고 그러한 반증이 없는 경우 의사측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의 결과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나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의료과오에 의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후적으로는 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소송에 이르기 전에 신속,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결과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도중에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적인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의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와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피해자 측에서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의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할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설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경감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자측이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그리하여 환자 측으로서는 의사에 대한

적절한 사실적 항의, 농성 등 비법률적이고도 업무방해적인 수단을 동원하거나 의사를 형사 고소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의료과실의 입증을 대신시키려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반면 의사로서는 최선을 다하여 의료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과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치료결과가 좋지 아니하다 하여 환자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달림을 받음으로써 성실하고 소신 있는 의료행위에 대한 의욕을 잃고, 심한 경우는 폐업하는 일도 있다.

가장 온건한 방법인 민사소송에 의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관하여는 환자측과 마찬가지로 비전문가라 할 수 있는 판사가 분쟁의 양 당사자를 모두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의사의 과실 여부나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명료하게 밝힌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의료과오에 의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후적으로는 소송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의사 등 전문가와 의료서비스의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중재 또는 조정 위원회를 도입, 이를 활성화하여 소송에 이르기 전에 대부분의 의료분쟁이 신속,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走(주)車(자전거:거)看(간)山(산) 230Km

- 남한강, 새재길 자전거 종주기 -

【 내 자전거 】 자전거를 구입한지 1년이 되었다. 그것도 MTB로, 이름하여 산악자전거라 했다. 어느 날 내가 즐겨가는 동네 야산에 이 MTB를 타고 와 길을 휘방하는 무리들을 보았다. 좋다! 이너들! 나도 자전거를 타고 포장도 안 된 길을 거칠게 다녀 보리라! 아직도 자극에 반응하는 도전정신이 남아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MTB의 원래의 목적대로 산만 누비고 다녔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포장된 도로가 매끄럽지 못해서 MTB가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자전거방 사장님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 후 일주일에 한 두 번은 여기저기 타고 다녔다. 내가 좋아하는 코스는 승용차 뒷자리에 자전거를 싣고 포항의 구룡포읍의 상정리까지 가서 차를 주차하고 자전거로 호미곶을 돌아오는 30km, 3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를 좋아하게 되었다. 포장도로, 임도의 비포장도로, 시멘트 농로, 대로의 노변을 달리다가 호미곶에서 나를 반기는 큰 손바닥을 만나보고 커피한잔하고 준비해간 썬코렛, 바나나 한 조각 먹는 기분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말로 설명이 안 된다.

【 마음먹기 】 인간은 미지의 세계를 알고 싶어 하는 법! 점점 간(肝)이 부어짐을 느끼다가 5월 초 아라자전거길과 한강종주자전거길(서울구간)을 완주하였다. 77km의 구간을 아침 9시경에 출발하여 오후 3시경에 도착하였다. 엄지손가락을 높이 들며 우리 아빠! 최고!라며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과 다시 만났다.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 길을 처음 종주한 것이었다. 힘들었지만 예상보다는 죽을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다. 집에 돌아온 후 인천서해갑문 매표소에서 구입한 여권과 유사하게 생긴 종주수첩을 이리 저리 뒤적이며 살펴보는 습관이 붙었다. 수첩에는 인증이라는 것이 찍혀있는데 국토종주 구간 10~30여 Km마다 인증센터라고 하는 빨간 전화박스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고 센터마다 디자인이 다른 도장을 수첩에 찍는다. 그런데 내 수첩에 찍힌 몇 개의 도장 외에는 수첩전체가 빈자리로 비어 있음이 눈에 비치고 말았다. 이 빈자리를 좀 더 채울 수 있을까, 매일 이리저리 머릿속에서 생각이 굴러다녔다. 다음 종주코스로는 팔당대교에서 충주댐까지의 한강종주길 130여km가 있는데 12시간도 더 걸린다는데 가능할까라고 자신이 없어 결심하지 못하였다. 아직도 생업을 하고 있는지라 가더라도 이틀이 소요되는데 할 바에는 충주 탄금대에서 상주 상풍교까지 새재길을 100km를 이틀에 걸쳐 종주하면 상주나 점촌에서 포항으로 돌아오기도 쉽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무리 궁리하여도 혼자 나서기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



김 광 우 원장
ABC김광우소아청소년과의원(포항)

며칠 고심하던 차에 평소 알고 지내는 K씨와 자전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어서 혹여나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흔쾌히 동의를 해주었다. 좋다! 내가 이래보아도 10년 전에는 마라톤을 8번이나 완주한 경험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보자는 강한 도전 정신에 빠져버렸다.

【 준비하기 】 K씨와 자주 만나서 우리의 도전에 대해 의논하고 준비와 각오를 다져나갔다. K씨는 나보다 훨씬 젊은 세대이다. 내가 부담이 될까 염려되기도 하였지만 지구력은 나도 상당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일 것이고 도리 없으면 노인 대접받는 썸 치자라는 돌파구를 만들어 놓았다

월, 화 휴가를 내어 포항에서 7월 7일 일요일 오후 5시 40분 동서울터미널 가는 버스를 타고 밤 10시가 넘어 동서울에 도착하였다. 인접한 호텔에 여장을 풀 우리는 자전거 등 배낭을 점검하였다. 나의 배낭에는 여름용 자전거 의류 몇 가지뿐이었다. 그 외는 최소한으로 필요 한 것만 챙겼다. 여분의 자전거 튜브와 소형어어펌프, 자전거 고리 열쇠, 외상치료용 거즈, 파스, 선텐, 칫솔, 치약, 지도, 초코렛, 바나나, 그리고 물통에 물을 확인하고 잠을 청했으나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우선 장마철에 출발하게 되어 비가 오락가락 하여 시작부터 비를 맞지 않을까 조바심이 날 뿐 아니라 처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장거리를 시작하는데 대한 두렵고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경험과 가보지 않던 산하를 돌아보는 설렘도 있었을 것이다.

첫째 날 남한강 종주 능내역에서 충주호까지

【 출발 앞으로! 】 출발지는 지난번 인증도장을 찍은 팔당댐 상류 4km 지점의 폐역인 '능내역' 이었다.

7월 8일,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 동서울 터미널 근처를 찾아보았으나 한군데 24시 음식점을 발견하여 아침을 먹고 6시에 오기로 한 콜벤을 기다렸다. 9-12인승 승합차를 내부를 약간 손보아 승객 4명과 적당한 짐을 실을 수 있는 이런 승합택시가 있어서 편리하였다. 드디어 6시 30분에



▲ K씨와 함께 출발지인 능내역에서

능내역에 도착하였다. 새벽인지라 인적이 별로 없었다.

지난 번 한강 서울구간 종주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찾은 역 주변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폐역의 쓸쓸함이 팔당호와 주변의 푸른 녹음과 어우러져 기막히게 아름다운 정취를 보였다. 먼저 인증센터에서 각자 도장을 찍고 손잡고 이번 도전에 대해 두 손을 마주 잡고 힘차게 기도한 후 자전거의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날은 흐렸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슬슬 시작된 비가 하루 종일 내려 몇 배나 힘든 주행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 그 동안 준비하면서 보이둔 자전거길의 화보에 있는 명승지점을 지나면서 확인하고 주변을 감상하는 것이 또 하나의 즐거움이었다. 능내역에서 5.8km 지점의 북한강철교를 지날 때에는 바닥의 목재판이 자전거의 타이어나 마주치는 소리에 말을 타고 건너가는 기분이었다. 양수역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가 8km를 돌아 나왔는데 또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몇 번 길을 잘못 들었는데 내가 무작정 앞장 서가면 후방에서 K씨가 예리한 눈으로 점검하여 길을 잘못 들면 앞선 나를 정지시키고 바른 길을 찾았다. 이후 주행 끝까지 이런 방식의 조합이 계속되었다. 이르자면 나는 훈련생같이 K씨는 교관 같은 조합이었다고 할까. 북한강 철교를 지나면 6개의 작은 터널이 있는데 기차 길로 사용되던 것을 정비하였다. 터널 안에는 자동 점등이 되어서 힘들지 않았으나 그 중 터널 한 개의 점등이 고장이 난 듯, 전혀 불빛이 없었다. 앞서가는 K씨의 라이트에만 의존하여 갔는데 시야가 한가운데만 밝게 보이는 현상이 되었는데 너무 어지러워 천천히 가라고

고함을 지르기까지 했다. 지옥에 끌려가면 이런 느낌이 될런지! 난 생 처음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운 아찔한 순간이었다. 드디어 1시간 40분을 쉬지 않고 24km를 달려 두 번째 인증센터인 양평미술관 앞에 도착하였다.

【 빛속의 역주 】 다음 목적지는 16km 떨어진 이포보였다. 남한강은 강유역도 넓고 흰하게 전망이 트여서 몸은 시간이 갈수록 피곤해 졌지만 마음만은 더욱 시원하게 흥겨웠다. 이포보는 이번 중주에서 처음 보는 보였다. 윤곽이 잘 보이는데도 워낙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어서 10km를 더 가야하였다. 이포보는 열 개 가량의 보 기둥위에 호박을 얻은 듯한 구조물이 강변과 어우러져 보기에 좋았다. 이포보를 지나서 여주보까지는 14km, 그런데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주는 여주 쌀로도 유명하지만 세종대왕 룡, 명성왕후 생가가 있는 역사적인 곳이다. 그러나 그런 여유로운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두 사람은 빛속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생존본능의 절대 행위인 양 순간순간을 이어갔다. 10km를 지나 강천보를 넘어가니 더욱 빗방울은 거세어졌다. 얼굴 마스크가 숨을 쉬는데 방해되어 벗어버렸고 고글을 벗어버렸더니 빗방울이 얼굴을 때리고 눈을 때려서 눈을 바로 뜨지 못했다.

그러나 빛속에 정지하여 쉬는 것이 도리어 힘들고 K씨와 보조를 맞추어 가는 지라 다음 휴식지점까지 갈 수 밖에 없었다. 옷도 젖고 자전거가 달릴 때마다 뒷바퀴에서 튀어오르는 흙덩이가 엉덩이를 폭삭 젖게 하였다. 오후 1시경 기진맥진하여 점심을 먹고 1시간가량 휴식하고 온몸이 젖은 채로 다시 출발하였다. '사서고생'이란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다행히 빗줄기는 조금씩 약해졌다. 극한 순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다리는 아파왔다. 열심히 달렸다.

【 돌발사고 】 내리막을 달리고 긴 교량을 지나서 한참을 달렸다. 그런데 후미에서 K씨가 따라오는 느낌이 없었다. 비가 계속 오고 있었으므로 멈추기도 힘들어서 한참을 가다가 좌회전 표지까지 와서야 뒤를 돌아 볼 수 있었는데 전혀 K씨가 보이지 않았다. 큰일 났다! 어찌되었나! 무슨

사고라도 났을까. 불길한 생각이 마구 났다. 여러 가지 생각이 났지만 다시 돌아가자니 힘이 들어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K씨는 오지 않았다. 폰을 걸어봤으나 받지 않았다.

마침 혼자 주행하는 한 사람이 다가왔다. 혹시 중간에 멈춰있는 사람이 없었냐고 물었더니 '동행 하시던 분이 있었지요' 하면서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하여서 일단 큰 사고가 아니어서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K씨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사고가 난 순간은 너무 아찔한 상황이었다. K씨의 자전거는 미니벨로라고 해서 20인치(보통은 26인치) 바퀴를 가진, 보기에 너무 귀엽고 감쪽한 자전거이다. 그러나 주행 속도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같이 달리던 사람들도 K씨의 자전거를 보면 '미니벨로다!'라고 반겨주는 자전거이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디스크브레이크가 아닌 패드 브레이크여서 빗길에 약한 편이다.

K씨가 내리막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하더라는 것이었다. 절대 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대로 자전거에 앉아 있었으면 어디라도 충돌하든지 낙상을 해서 큰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순간의 기지를 발휘하여 마침 우측에 가로를 이어주는 가드레일이 있어서 오른팔로 그것을 급하게 부여잡고 매달렸고 자전거는 그대로 수 십 미터를 가서 박혀버렸다. 다행히 찰과상 정도였고 자전거도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브레이크가 너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 골인! 】 악전고투 끝에 목적지는 다가오고 있으나 영치빠가 아파서 자전거에서 타고 내리는 것이 너무 괴로웠고 딱 쥐고 있는 핸들을 권 오른손목은 점점 저러왔다.

드디어 충주가 가까워지고 있다. 충주댐이 20Km 남아있는 지점 댐이 하나있었는데 고대하던 충주댐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조정지 댐이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해그림의 충주호에서 피어나있는 물안개는 맛있는 솜사탕 같이 피곤한 몸을 녹여 주었다. 나머지 20km는 너무 난코스였다. 자전거 길의 조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충주 시내를 통과하자니 위험하기도 했다. 특히 마지막 30분간은 경사가



▲ 이화령 정상

너무 심하고 힘도 빠진 상태여서 걸을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목적인 충주댐 전망대에 도착하였다. 날은 어두워졌다.

【안식】 135km를 12시간 35분 걸렸다.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실현했다는 기쁨이 있었으나 그것은 잠시, 너무 힘들어서 빨리 쉬고 싶었다. 시내 숙소까지 다시 자전거로 가자면 1시간 이상 걸리고 비도 다시 오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뒤져서 충주의 콜벤을 찾아 예약해 둔 숙소로 올 수 있었다. 늦은 저녁을 든든히 먹고 자리에 누웠으나 온몸이 아프고 한번 누우니 일어나기 힘들었다. 무릎, 팔목 등에 소염제를 바르고 무릎에 압박대를 하고 잠을 청했으나 뒤척이다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깊게 잠이 들었고 다음날 5시에 번쩍 일어났다.

누가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하라고 명령한 사람도 없는데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후회가 되기도 했다.

꿈결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생각났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으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디모테 전서 4:8)

둘째날의 거센 도전 충주탄금대에서 점촌까지

이른 새벽, 숙소에서 5km 떨어진 탄금대에 갔다. 신라 진흥왕 때 악성 우륵이 가야금을 이 언덕에서 연주하였다고 하여 이름 지은 탄금대는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왜군과

싸우다 전사한 역사적인 명승지이지만 돌아보지도 못하고 인증센터에서 도장만 찍고 돌아섰으니 후회막급이다.

아침으로 빵 한 조각을 먹고 출발한 것이 6시 35분.

비가 올 듯이 흐렸다. 제발 오늘은 비를 맞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한강 지류인 달천을 따라서 이어지는 자전거길은 정말 아름다웠다. 10km 지점에 있는 수주팔봉까지 빠른 역주를 하고 한숨 돌리며 잠시 쉬었다. 수안보까지 절경을 즐기며 해발 300미터의 소조령을 거쳐 해발 600미터의 이화령을 향해갔다. 남한강중주와는 달리 새재중주는 소조령과 이화령을 넘는 것이 주된 문제였다.

이화령의 정상에 다가갈수록 쉬었다 페달을 밟기를 반복하면서 드디어 이화령의 정상에 오르니 지나온 길이 아득하게 보였다. 이 길을 따라 선조들이 한양을 향해 장원급제의 꿈을 실현하려고 희망을 품고 북으로 향했을 것이고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낙심하여 힘없이 이 문경새재를 넘어 남으로 고향으로 향했을 것이다.

점심을 먹고 충분히 휴식하고 이화령을 내려갔다. 너무 신나는 내리막길이다. 그러나 무리해서 속도를 내다가는 큰 사고가 나기 쉽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여 브레이크를 잡으며 10여km를 쏙살같이 내려갔다.

점촌 근방에 오니 길이 이리저리 혼란스러웠으나 문경 불정역에서 마지막 인증 도장을 찍었다. 새재길의 종점은 상주 상풍교이지만 포항으로 가는 버스가 4시20분이어서 15km를 남겨두고 충주를 끝내고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82Km에 8시간 30여분이 걸렸다.

【귀환】 점촌 시외버스터미널까지 10여km를 달려서 3시 넘어서 도착하였다. 이제 집에 돌아가는 일만 남았으니 마음이 평안하였다.

점촌에서 오후 4시 20분 상주, 구미, 경주를 거쳐 포항까지 3시간 30분이 걸리는 시외버스를 탔다. 흰 와이셔츠에 검은 라이방을 낀 젊은 기사양반의 활기찬 안내로 추억의 시골완행버스를 탄 기분을 느끼며 저녁 8시 10분 출발지인 포항에도 도착하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슨 장한 일을 하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온 나를 집을 나가서 늦게 날다 온 아이 보듯 마중 나온 아내를 만나 집으로 향했다.

이번 여행으로 나는 새로운 세상,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세삼 확인하였고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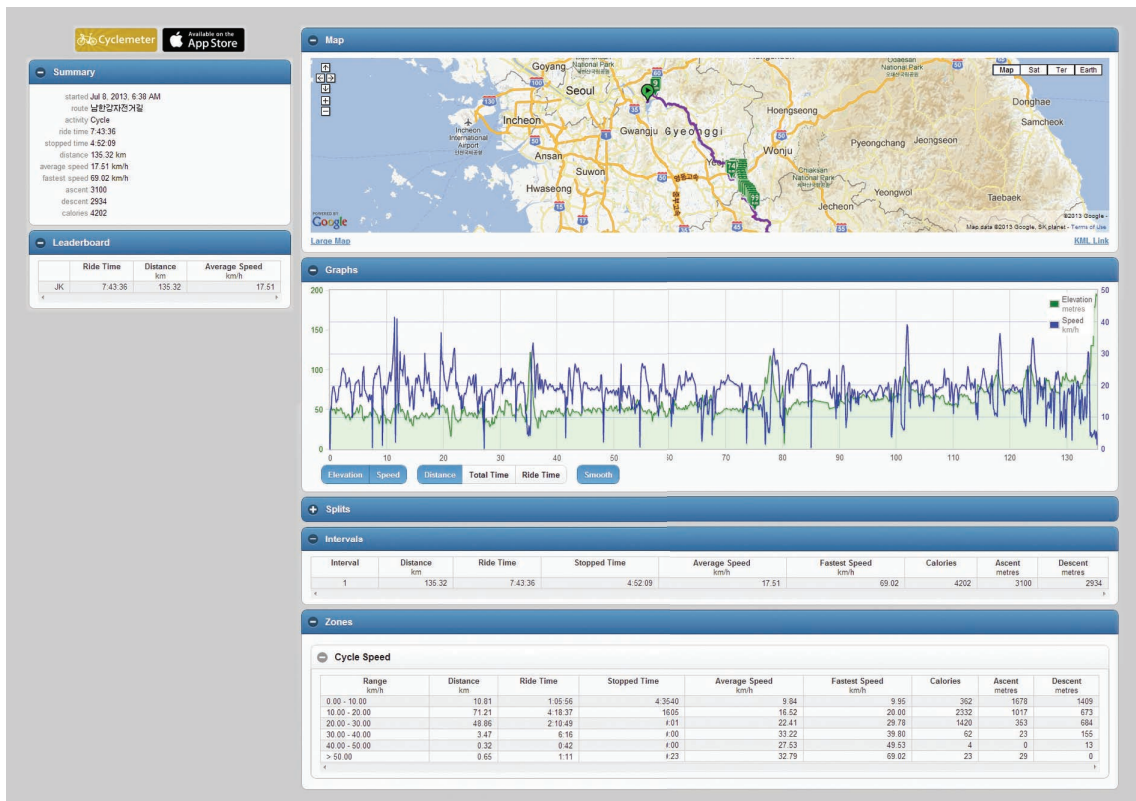
【가슴에 남는 것】 국가노후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2년
째이다. 무엇보다 노후를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건강주시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 走馬看山격으로 오로지 달리기만
집중하여 산하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지만
이번 여행으로 나는 새로운 세상,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세삼 확인하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자전거 국토종주
를 적극 추천한다. 물론 온갖 산과 종주길을 이미 섭렵한

분들에게는 내가 종주한 것이 새 밭의 피로 여겨지겠지만,
그저 나만의 것으로 여겨주시기 바란다.

생각은 비전을 낳고 비전을 행동을 낳는 법! 남은 4대강
종주 중 영산강과 섬진강 종주가 다음목표이고, 낙동강,
금강, 북한강, 비무장지대, 제주도 등이 차례로 나를 기다
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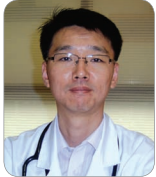
2013년 7월



▲ 앱을 사용한 기록

마법의 성

| 연주자 안형수



김광렬 원장
김광렬외과의원
(구미시의사회 공보이사)

몇 년 전 운전 중에 라디오에서 기타 음악을 듣게 되었다. 섬집아기.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듣다가 차를 도로 가에 세워 둘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 따뜻하고 가슴 저리게 들려오는 기타의 음에 좀 더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연주가 끝난 후 연주자를 간단히 소개하는 아나운서의 설명을 듣고 나는 한참을 길 가에 차를 세운 채로 그렇게 있었다. 안형수라는 기타리스트를 알게 된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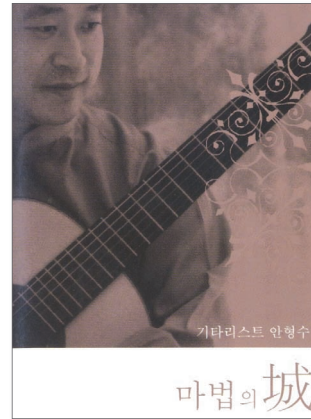
안형수씨는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안 형편상 중학교를 포기한 그는 집 근처 이발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우연히 듣게 된 클래식 기타 음악에 그는 마음을 온통 빼앗기게 되었다. 그의 운명을 결정지은 음악이었다. 이발소 일이 끝나면 그는 동네 형의 기타를 빌리고 여기 저기서 기타 교본을 구해 혼자 기타 연습을 했다. 기타가 좋아 밤 새워 기타를 친 적도 많았다고 한다. 또래의 친구들이 다 학교에 가버리고 혼자 남겨진 외로움이 그를 더 기타에 빠지게 만든 건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사춘기를 보내고 그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다. 이발소에서는 더 이상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신발공장에서 신발을 만들기도 하고 신문팔이도 하고 온갖 직업을 전전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그렇게 중,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다. 지치고 축난 몸으로 고향에 돌아온 그는 군대를 가게됐고 제대 후 기타와 관련된 무언가를 계속하기 위해서 기타를 만드는 공방에 취직을 하게되었다. 마땅한 잠자리가 없어 공방에서 잠을 자고 끼니를 해결 했다. 낮엔 기타 만드는 법을 배우고 밤엔 기타 연습을 계속 했다. 손재주가 있었던 지 기타 제작자라도 점차 이름을 얻어갔다고 한다. 힘들고 궁핍한 시간이 이어졌지만 그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운명은 그런 그를 저버리지 않았다. 당시 우리 나라 유일의 기타 공쿨에 시험삼아 나갔다가 대상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 공쿨의 심사위원이었던 교수의 권유로 그는 당시 기타과가 있었던 피어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기타를 만들어 팔고 연주회를 하면서 대학 학비를 벌고 유학 비용을 마련해나간 그는 졸업 후 꿈에 그리던 기타의 성지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스페인에서는 다른 사람 머리를 깎아주기도 하고 거리에서 연주를 하

면서 유학 비용을 충당했다고 한다. 그렇게 6년간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국내 최고의 클래식 무대라는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를 했고 음반도 냈다. 성공적이었다. 섬집아기가 들어있는 그 음반은 아직도 스테디셀러라고 한다. 고향에서도 연주회를 했다.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던 소년이 우리나라 최고의 연주자 중 한 명으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귀국 후 유명세를 타고 여기 저기 연주회를 다니며 유명 교향악단과 한국인 최초로 아랑페즈 협주곡을 연주하기로 되어 있던 그는 무리한 활동과 연습으로 오른 손이 탈이 났다.

손가락이 안으로 말려들어가 잘 펴지지 않게 되었다. 손을 너무 많이 쓰는 연주자들이 가끔 걸리는 질환이라고 하는데 연주자에게는 거의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로 한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기타리스트... 연주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강원도 산골에서 무작정 상경했던 까까머리 소년이 고난 속에서도 악착같이 지켜왔던 그 꿈을 이루었을 때, 이제 막 자신의 꿈을 이루었을 때, 가장 밝고 높은 곳에서 그는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기타 제작하는 친구가 이제 연주 그만하고 같이 기타나 만들자는 위로 아닌 위로를 했다. 다 이루었던 꿈이 사라진 그 때가 어려웠지만 꿈을 꿀 수 있었던 그 시절보다 몇 배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 때부터 그는 새로운 그만의 연습을 시작했다. 한 음을 통기고 손가락이 퍼질 때 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 음을 통기고... 처음엔 하룻밤에 고작 음 몇 개 만들 소리 낼 수 있었다. 차츰 손가락이 퍼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1년 가까이 이 과정을 반복했다고 한다. 연주자로서 사형선고 같은 장애를 극복하고 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그는 5년 만에 새로운 연주 앨범을 녹음하게 되었다. 기타를 위해 살아왔지만 기타를 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다시금 기타를 연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법의 성" 이 한장의 앨범에는 연주자의 땀과 눈물,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배어있다. 기타리스트 안형수의 인생과 기타 음악이 그려내는 여백의 아름다움을 이 음반에서 느껴보시길 바라며 일정을 권한다.



감 / 사 / 인 / 사 / 드 / 립 / 니 / 다

-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기금 후원 -

2012년도 일시납

- 500만원
 - 정능수(의성, 동산연합의원)
- 200만원
 - 김광만(포항, 지곡그린의원)
- 100만원
 - 김중서(대구, 대구광역시사회장)
 - 김재왕(안동, 김재왕내과의원)
 - 신현수(안동, 북주병원)
 - 이석균(경산, 청십자내과유외과의원)
 - 장유석(경산, 장유석외과의원)
- 50만원
 - 방종경(성주, 덕산의원)
 - 이우석(포항, 영동내과의원)
 - 이종형(영천, 대동정형외과의원)
 - 황석순(포항, 황석순내과의원)
 - 한형원(포항, 한형원내과의원)
- 30만원
 - 장재혁(경산, 제일정형외과의원)
- 24만원
 - 이길호(경주, 큰마디병원)
- 20만원
 - 김종영(경산, 김연함소아청소년과의원)
 - 이광희(경산, 제일신경외과의원)
- 15만원
 - 황중현(구미, 황중현내과의원)
- 12만원
 - 김병철(칠곡, 김병철이비인후과의원)
 - 김철기(구미, 김철기소아청소년과의원)
 - 김학근(구미, 중앙내과의원)
 - 박봉기(문경, 박내과의원)
 - 박우진(문경, 중앙의원)
 - 서창수(영덕, 서창수외과의원)
 - 이영현(칠곡, 칠곡가톨릭피부과의원)
 - 이원석(칠곡, 박외과내과연합의원)
 - 이태규(칠곡, 왜관정형외과의원)
 - 황정환(상주, 상주성모병원)
- 10만원
 - 강혁주(구미, 강내과의원)
 - 김경목(안동, 김경목내과의원)
 - 김광인(안동, 안동제통의원)
 - 김석곤(안동, 인선학문외과의원)
 - 김영권(김천, 김영권정형외과의원)
 - 김영석(안동, 한일외과의원)
 - 김영조(칠곡, 김영조내과의원)
 - 김익(포항, 김익가정의학과의원)

- 김인환(영천, 김인환내과의원)
 - 김재순(경산, 밝은내과의원)
 - 김진업(경산, 옥산삼성의원)
 - 도일노(상주, 상주성모병원)
 - 류기찬(경산, 류기찬내과의원)
 - 맹종수(경산, 경산정형외과연합의원)
 - 박대홍(문경, 삼성안과의원)
 - 박무식(안동, 박무식성형외과의원)
 - 박재홍(포항, 북부정형외과의원)
 - 박종완(경산, 경산정형외과연합의원)
 - 석제홍(김천, 석제홍제통의원)
 - 송재경(포항, 송재경산부인과의원)
 - 신연재(포항, 하나이비인후과의원)
 - 신은식(포항, 신정형외과의원)
 - 안재현(포항, 안재현의원)
 - 안호춘(포항, 포항태항외과의원)
 - 양사규(영천, 현대의원)
 - 엄동환(영주, 영주가톨릭병원)
 - 오세진(포항, 오세진비뇨기과의원)
 - 오영택(상주, 상주성모병원)
 - 오춘석(구미, 오연함이비인후과소아과의원)
 - 이승구(상주, 상주성모병원)
 - 이승호(상주, 대한적십자사상주병원)
 - 이우세(포항, 대한정형외과의원)
 - 이정일(영주, 이정일산부인과의원)
 - 이종호(영천, 현대중앙의원)
 - 이주원(김천, 이주원내과의원)
 - 이춘식(경주, 경주내과의원)
 - 이태엽(영천, 영천산부인과의원)
 - 이현철(포항, 이현철의원)
 - 이형철(구미, 선산제일병원)
 - 이흥우(경주, 서울내과의원)
 - 임승우(영천, 신경의원)
 - 임판주(칠곡, 조은소아청소년과의원)
 - 조성범(경주, 한빛아동병원)
 - 조진태(영천, 조가정의학과의원)
 - 최경태(경산, 현대외과의원)
 - 최종두(안동, 최정형외과의원)
 - 허찬욱(영주, 허찬욱이비인후과의원)
 - 현상훈(구미, 신세계연합의원)
- 5만원
 - 김우석(포항, 포항태항외과의원)
 - 임지훈(경주, 서울내과의원)
 - 전우진(봉화, 동산종합의원)

자동이체

2012. 9 ~ 2013. 8 현재까지

- 120만원
 - 권순호(의성, 삼성연합의원)
 - 60만원
 - 최영환(안동, 최영환내과의원)
 - 50만원
 - 000(고령, 고령군의사회)
 - 36만원
 - 김병용(구미, 해피맘산부인과의원)
 - 김찬중(칠곡, 우리가정의학과의원)
 - 30만원
 - 이정미(포항, 포항성모병원)
 - 27만원
 - 이규중(영덕, 영덕파티마의원)
 - 22만원
 - 이건중(의성, 서울마취통증의학과의원)
 - 20만원
 - 이재홍(의성, 경북외과의원)
 - 12만원
 - 권귀련(포항, 포항세명기독병원)
 - 김두표(안동, 안동병원)
 - 김성기(영천, 영남마취통증의학과의원)
 - 김영신(포항, 포항세명기독병원)
 - 이건희(경산, 파티마연합통증의학과의원)
 - 이국희(의성, 동산연합의원)
 - 이주섭(청송, 삼성의원)
 - 정만진(청송, 경북북부제3교도소부속의원)
 - 정세주(김천, 정세주내과의원)
 - 최계정(김천, 동산연합의원)
 - 11만원
 - 김석주(포항, 다미안김석주피부과의원)
 - 서보균(포항, 포항교도소부속의원)
 - 이상호(의성, 대신의원)
 - 지성구(구미, 경북외과의원)
 - 9만원
 - 김일환(의성, 김일환내과의원)
 - 문상웅(안동, 제일외과의원)
- 2,912,250만원
 - 장상익(주 상우 캄보디아)
 - 100만원
 - 정만진(청송, 경북북부제3교도소부속의원)
 - 이성구(대구, 대구경북계원내과사회장)

2013년도 일시납



한국이 만든 **아모잘탄, 코자XQ**로 세계와 만납니다

한미약품이 고혈압 복합신약 아모잘탄(아모디핀/오잘탄)을 전 세계 51개국에 코자XQ(아모디핀/코자) 브랜드로 수출합니다.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미약품은 글로벌 신약 개발로 제약 한류(韓流)를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모잘탄[®]정 발매 4주년

- SCI급 국제 학술지 등재 (AJCD, BMC, Clinical Therapeutics)
- 국내최초 Initial Therapy • MSD 통한 세계 51개국 수출
- CCB+ARB 처방건수 1위 (UBIST/IMS)

■ 성분 : 임로디핀 칼실레이트, 로자탄 칼륨 ■ 효능효과 : 1. 임로디핀 또는 로자탄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2. 제2기 고혈압환자에서 치료 목표 혈압에 도달하기 위해 복합제 투여가 필요한 환자의 초기 요법 ■ 제품문의 : 080-916-9000(소비자상담실)